UNDERSTANDING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N KOREAN CHRISTIAN CONTEXT: AN INTERVIEW STUDY

A Professio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Myung Sook Cho

May 2020

This Professional Project completed by

Myung Sook Cho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K. Samuel Lee, Chairperson

Namjoong Kim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20

ABSTRACT

UNDERSTANDING THE VICTIMS OF DOMSTIC VIOLENCE

IN KOREAN CHRISTIAN CONTEXT: AN INTERVIEW STUDY

by

Myung Sook Cho

The purpose of this project was to understand Korean Christian women's experience as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ix victims. The following themes surfaced in analyzing the data: the husbands' various ways of inflicting domestic violence; the patterns of victims' experiences; the influence of husbands' family members and external influences; and theological interpretation. The author proposed the following changes: appropriate responses by the church so that the church does not re-victimize the women, alternative interpretations to root out embedded theology, and pastors who understand their responsibilities as counselor and theologian. In conclusion, I suggested that domestic violence damages the society as a whole and that courage is needed in the pastoral leadership to bring about constructive changes. In addition, the church community must be conscious of the lack of critical reflection on abuses of power. Finally, pastors should help create a space of resistance that discloses and publicizes problems.

KEYWORDS: Feminism, Sexism, Patriarchy, Domestic Violence, Feminist Theology

국문 초록

한국 기독교 내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면담 연구

by

Myung Sook Cho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으로 6명의 피해 여성들과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도출한 자료 분석을 통해 다음의 주제가 표면화되었다. 남편의 다양한 폭력행사 방법, 아내의 피해 양상, 남편의 다른 가족들과 외적 영향, 그리고 신학적 해석. 저자는 교회 내에서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의 재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 내재적 신학에 대한 해석적 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상담가와 신학자로서의 목회자의 책임에 대해 피력하였다. 결론적으로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맞서야 하며,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의 용기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권력의 남용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부재에 대해 문제의식을 거론하였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는 폭력의 문제를 드러내고 공론화하는 저항 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키워드: 페미니즘, 성차별, 가부장제, 가정폭력, 여성신학

SUMMARY

Since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was enacted in 1997, domestic violence has no longer been just a *personal* matter in Korean society. So how does the church respond to these changes in society? As a pastor and director of the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 I have seen first-hand the absence of change in the church. This study investigated stories of domestic violence through the voices of women who had survived i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women who had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I chose a phenomenological method of qualitative research and therefore focu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women as reported in interviews.

Analysis of interviews revealed several dynamics at play within situations of domestic violence. First, the woman became an object of resentment and stress to her husband, such that home became a place not of safety but of threats and control. The patriarchal structure of power allowed for the husband's various acts of violence. Second, the woman became damaged as she internalized her husband's evaluation of her as an object and a subordinate. Patriarchal religious values take for granted that women will oppress themselves, and women have adapted to this expectation, accepted the divine order, and acted as conspirators of patriarchy. Third, a vertical relationship was formed in the marriage by the husband's coercion and the patriarchal society. Moreover, the more vertic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xes is, the more power and status men have to exercise violence. Finally, divorce represented a failed life, so women's options were severely limited.

According to Kang Nam Soon, it is rather easy to blame and demonize an actor; she calls this destructive anger. What is needed, rather, is reflective anger, which focuses on and analyzes the action itself and can be learned together through solidarity. Therefore, consistent with a feminist theological perspective, first, the task is to make sure that women are not made to re-experience their abuse within the church community. We should no longer allow spiritual violence that forces victimized women a to pray, obey, and sacrifice more for their perpetrators. We must help the victims tell their story in their own voice. Second, we must develop intentional theology, not the embedded theology based on one's own values. Victims live with embedded theology based on experiences in their lives. K. Samuel Lee is interested in what victims' barriers are and argues that the church needs to help victims understand their barriers so that they can live a full life of faith in the church. It is necessary to form a new intentional theology by questioning and distance from the embedded theology. Third, pastors must be required to respond to victims' stories. The response should not be limited to just listening to their stories, but should also include understanding the complex relational interactions in the victims' lives. Pastors must be able to recognize their own limitations and find ways to cooperate with public resources.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the church not treat domestic violence as an individual matter, but rather as a vulnerability of society that the church needs to face with courage. Firt, we must recover to wholeness those whose stories reveal they have been treated as objects. The church should use its prophetic voice to spearhead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community. Second, we must encourage victims to become more aware of their abuse. The absence of critical reflection on the abuse of power leads some victims to not feel the need for any change. To gain a critical perspective, we must share our thoughts. This power of collective reflection will guide

us to greater awareness; therefore, critical thinking is crucial. Third, in order to bring about a change in patriarchal attitude, we need efforts to reveal and publicize problems. The pastor should provide psychological support for victims to form a space of resistance. To this end, I suggest monitoring the gender-discriminatory language of pastors and enhancing awareness through gender-sensitivity training.

This project analyzed the problem of the church and domestic violence from the perspective of victims, and did not include the voices of pastors. I hope that future work will expand this discussion and include the perspective of pastors, who must work together to institute the necessary changes.

국문 요약

1997 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니게 되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목회자이자 가정폭력 상담소 소장으로서 나는 그 변화의 부재를 교회 내에서 발견하는 현실에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피해경험 여성들의 목소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

6 명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질적 연구 중 현상학적 방법으로 드러난 현상의 본질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첫째,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가정 안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편의 화풀이 대상이자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이 되었고, 협박과 통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가부장제적인 권력 구조 안에서 남편의 분노 조절 어려움과 함께 다양한 폭력 행사가 드러났다. 둘째, 다양한 피해를 경험하며 여성들은 남편의 평가가 곧 자신의 평가가 되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가치를 내면화 하였다. 여성들이 자신을 스스로 억압하는 구조를 당연시하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화 된 종교적 가치를 통해 그 구조에 순응하고, 신적 질서를 받아들이며 가부장제의 공모자 역할을 하였다. 셋째, 강요와 사회적 담론에 의해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나아가 이혼은 인생 실패라는 통념으로 참고만 살았으며, 성 역할의 기대가 높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힘과 지위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순은 파괴적 분노를 표출하여 행위자를 비난하고 악마화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임을 지적한다. 파괴적 분노가 아닌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성찰적 분노가 필요하며 이는 연대를 통해 함께 배워갈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신학적 관점과 함께 발전시켜 나가보면 첫째,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재경험에 대한 응답이

요구된다. 더이상 피해 여성들에게 가해자를 위해 더 기도하며 복종하고 희생하도록 동질성의 공동체를 강요하는 영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찾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자신이 가진 가치에 근거한 내재된 신학이 아닌 의도적 신학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경험한 것에 근거한 내재된 신학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K. Samuel. Lee 는 그들이 가진 장벽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장벽이 어떻게 피해자들의 적응을 방해하며 제한하고 있는지 알게 하고, 그 장벽에 대체할 방법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재된 신학에 대해 거리 두기와 질문을 통해 새롭게 작용하는 의도적인 신학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목회자들은 응답할 책임을 요구받는다. 그 응답은 단순히 행위적인 것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복잡한 관계적 상호작용을 포함해야 한다. 목회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공적 자원과 협력해 나갈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첫째, 교회가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적 취약함으로 인식하고 맞서는 용기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목소리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상실된 존재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되찾아야 한다. 이는 교회가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통해 공동체의 제도적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요구된다. 힘의 남용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부재는 어떤 문제의식이나 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비판적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사유를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의 힘은 연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셋째, 가부장제적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문제를 드러내고 공론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회자들은 피해자들이 저항 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대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들의 성 차별적인 언어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인지 교육을 통한 민감성 확보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피해자의 목소리로부터 출발하여 분석하였으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제한점을 인정하며, 추후 이러한 논의가 더욱 확장되길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I
서론 (Introduction)

A. 문제 제기

나는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책임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기독교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느끼게 되는 경험의 본질에 대해 관심과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 온 많은 내담자들은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1]들과 '의무 교정'[2]의 일환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가해자들이었다. 물론 '피해자는 주로 여성'[3]이지만, 때로는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 중에 기독교인 가정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먼저 놀라움과 동시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진 가족 안에서도 일반 여타의 가정들과 다름없이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었다.

더 큰 놀라움은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목회자 또는 평소 친분이 있고 존경하는 교인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지만, 그 과정에서 신앙인이란 이름 때문에 더 큰 이중의 상처를 받게 되는 2차 피해의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해경험 여성들은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가정폭력 문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저 참고 견디다 더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상담소를 찾는다는 것이다. "나 같은 여자 교회 안에 많아요!" 어느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의 울부짖음이다. 왜 이들

---

[1]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에서 '피해경험여성'으로 붙여 쓰지 않고 '피해경험 여성'으로 '여성'을 띄어쓰기한 것은 문법적 해석의 개입이 아니라 '피해경험'에 '여성'의 의미가 종속되어지는 것을 경계한다는 순전한 의도로 내가 '여성'을 분리 표기한 것이며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은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아내를 말한다.

[2] 가정폭력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사건화 되어 검찰이나 법원에서 '가정폭력 특례법'에 의해 '가정 보호사건'으로 판결되어 보호처분 결정을 받게 된다. 그 중에 8호 처분으로 '상담위탁 명령'을 받게 되면 수탁기관인 전문 상담소로 연계되어 6개월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내가 책임자로 있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서울가정법원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가해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3] 조용석, "[2018국감]최근 3년 가정폭력사범 16만 … 피해자 75% 여성," *이데일리,* October 3, 201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15366619369312&mediaCodeNo=257.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사범이 1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 13만 9053명 중 여성은 75% (10만 4802명)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교회 목회자나,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움도 받지 못하고 지내왔을까?' 또한 고통 속에서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상담소를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라는 고민과 함께 현실과 이상 사이의 거리를 느끼며 분노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크리스천 가족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나 신앙의 선배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주로 다음과 같았다. 가정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거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한 탓으로 돌려졌다.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견딜 만한 시험을 준 것이기에 더 기도하라는 권면을 듣기도 하였다. 교회는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폭력피해 여성들에게 참고 희생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해왔다.[4]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에게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상담을 해준다. 그렇기에 현실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 자신이 마음으로 가해자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결국은 스스로에게 순종과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이중적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며, 가부장제 폭력이 유지되는 핵심 요소로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이 자신을 희생하여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피해자 본인에게는 과연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렇게 지켜냈다고 생각하는 가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많은 피해경험 여성들이 폭력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그 아픔을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비롯하여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참고 살아야만 했을까?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억압의 구조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과연 목회자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목회자와 교회는 왜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지 못할까? 과연 목회자와 교회공동체는 교인들 가정에서도 빈번하게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얼마만큼 직시하고 있을까? 나는 이러한 질문들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의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

[4] 강남순, *배움에 관하여* (서울: 동녘, 2017), 221.

우리가 폭력을 논의할 때 '누구의 관점에서 폭력인가, 누구에 의해 사용되는가, 어떠한 사회문화적 가치에 의해 규정된 것인가'와 같은 복합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5] 나는 이러한 복합적인 폭력이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교회 내에서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피해여성들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경험의 본질을 살펴볼 것이다.

B. 논지와 토론

해석학의 경우 과거에는 단지 '정확한 텍스트의 이해'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텍스트가 어떤 과정에서 경험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서로의 이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실존과 관계에 대한 지평을 넓혀 줄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어떻게 해석되고 다루어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너는 할 말 못하는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의 호소를 위해서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 바른 판결을 내려 고통받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어라" (잠언 31:8-9). 이 말씀에 근거하여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의 프로젝트를 준비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첫째,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을 심층 면담하고,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그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목소리를 낯선 태도로 경청하였다. 둘째, 그들에게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대해 깊은 공감에 머무르며 그들의 경험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목회상담의 실천적 응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대로 회복되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삶을 살도록 돕고, 이후로는 피해자의 삶이 아닌 한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김애화는 여성이 행복해지는 것은 사회의 제도나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 가부장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 인식으로부터

[5]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서울: 동녘, 2018), 251.

출발해야 함을 주장한다.[6] 강남순 역시 폭력에 대한 예민성을 기르고, 다양한 폭력적 이데올로기들을 비판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가 가진 긴급한 과제임을 이야기한다.[7]

본 프로젝트는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에 대한 목회자와 교회 안에 내재되고 뿌리 박혀 있는 선입견들을 해체하여 피해자들의 경험을 자신의 목소리로 낼 수 있도록 하며, 그 내면의 소리가 반영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경험을 면담을 통해 알아보고, 질적 연구 방법인 심층 면담 연구방법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게 요청되는 응답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듣고자 하였다.

C. 사용할 용어들의 정의

1. 페미니즘

페미니즘(feminism)은 가부장제와 그 억압적 구조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성차별주의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 의하여 지지되는 반성차별주의(anti-sexism)이다.[8] 페미니즘은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정치적 권리가 여성에게 있다는 이론을 지칭하며 이런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조직화된 운동으로 여성의 힘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믿는 신념 등을 지칭한다.[9] 현대에 와서 인종이나 착취와 차별 등 사회에 존재하는 어떠한 차별구조에도 반대하고 모든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의 평등을 지향하는 운동과 이론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10] 가부장제에 근원적 비판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에 근거한 차별을 반대하고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다.[11]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며, 따라서 존엄성을 지닌다는 전제 아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새로운 사회를 위한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이다.[12]

---

[6] 김애화, *탈 가부장제 사회 구성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서울: 새세상연구소, 2010), 21.
[7] 강남순, *배움에 관하여*, 224.
[8]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102.
[9] 강남순, *젠더와 종교: 페미니즘을 통한 종교의 재구성* (파주: 동녘, 2018), 44.
[10]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파주: 동녘, 2018), 212.
[11] 강남순, 212.
[12] 강남순, *젠더와 종교*, 98.

2. 성차별

성차별(sexism)이란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억압과 차별 그리고 불평등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현실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다.[13] 여성 혹은 남성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명백한 사회문제로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여성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의 억압과 활동을 제한시키는 역할을 한다.[14] 성차별주의는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하여 형성된 남성과 여성의 차이성을 문화-사회적으로 고정관념화 하여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그리고 남성을 우월한 존재로 차별화하고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가정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억압의 구조를 지칭한다.[15]

3. 가부장제

가부장제는 페미니즘과 여성신학적 분석에서 핵심적인 용어이며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남성지배의 제도화된 구조를 의미한다. 가부장제적 사회는 '아버지들의 지배'가 가정과 사회 등의 모든 사회적 조직의 기본적 원리를 이루는 사회이며 가부장제에서 아버지는 모든 소유권과 지배권, 그리고 결정권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권한과 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차원에서 그리고 심각하게는 종교 차원에까지 확장된다.[16] 즉 힘의 악용에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지배의 또 다른 구조로서 이념과 제도에 의해 영속되는 남녀 간의 불의한 권력 관계를 말한다.[17] 가부장성은 성에 기초하여 남성 우위의 형태로 권력이 배분되고 남성들 간의 위계관계 및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권력의 남용을 묵인하여 여성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종속적 위치에 있게 되거나 여성을 억압하고, 직업, 종교, 정치, 가정, 시민 생활에 드러나거나 감추어진 여성에 대한 차별의 원인이 된 것이다.

---

[13] 정세화 et al., *여성학의 이해* (서울: 경문사, 1998), 21-22.

[14] 정세화, 21-22.

[15]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47.

[16] 강남순, 14.

[17] James Newton Poling, *The Abuse of Power: A Theological Problem 성폭력과 힘의 악용* (파주: 한울, 2015), 42.

4.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주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8] 가정폭력 속에는 아동 학대, 아내 학대, 배우자 학대, 아내 구타, 배우자 구타, 배우자 폭력, 노인 학대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된다.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므로 단순히 물리적 힘이 있고 없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사회경제적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난다.[19]

부부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갈등이 생긴 문제에 대해 서로 다투는 부부싸움과 힘이 강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힘이 약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는 행위인 가정폭력은 차이가 있음을 분별해야 한다. 단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부싸움과 아내를 구타하는 학대적인 폭력은 다르다.[20] 본 프로젝트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만이 아니라 권력과 통제를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것을 가정폭력으로 지칭한다. 즉,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위들은 비가시적이지만 피해자에게는 가시적인 폭력 이상의 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모두 가정폭력 범주안에 포함한다. 본 프로젝트에서의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을 지칭한다.

5.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21]란 가정폭력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홍미리는 피해의 맥락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해를 경험한 여성을 직접적으로 ‘피해자’로 명명하지 않고 ‘피해 경험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여성을 ‘피해자’로만 보는 것은 성차별적인 이데

---

[1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last modified March 2, 201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397&efYd=20160903#0000.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모든 학대행위이자 범죄이다.

[19]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예방교육 표준 매뉴얼 강사지침서: 공공기관용* (서울: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2013), 51.

[20] Norman B. Epstein, “Assessment and Treatmen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15.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정의 (제2조 제5호).

올로기를 강화해 가해자와 피해경험자 사이에 개입하는 권력 관계를 보지 못하게 한다.[22] '피해자'로 자신을 정체화하거나 명명함으로써 "매 맞는 여성" 이미지가 일반화되거나 고착화되어 가정폭력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수용하지 못하여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하고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23] 피해경험을 해석 시 여성의 행위가 개입된 것이라고 보았고, 여성의 행위가 개입된 이상 피해는 피해를 당하는 사람,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경험자로 명명함으로써 여성의 피해 경험은 가시화되고 맥락화 될 수 있다"[24]고 보기 때문에 나 또한 이 프로젝트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경험자라고 정의하며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에서 여성은 남편에 의한 학대를 당한 아내를 말한다.

6. 여성신학

신학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비추어진 인간의 경험을 반성하는 작업이라고 정의'[25]하면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인간의 경험과 관점에 의해 신학이 형성되기 때문이다.[26] 이제까지의 전통신학은 인간 전체의 경험이나 관점이 아닌 남성의 체험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가부장제적이고, 여성의 경험을 배제하여 여성의 삶을 황폐화했으며 마치 남성 중심적 신학이 인간 보편의 경험을 반영하는 '잘못된 보편화'(faulty universalization)를 형성하였다.[27]

여성신학은 남성지배권의 사회구조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여성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신학이다.[28] 페미니스트의 관점(feminist perspective)에서 신학을 형성하는 것이며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것으로 인간의 평등이 종족이나 성별의 차이에 제

---

[22] 홍미리, "젠더 감수성(gender sensibility)확장을 통한 일상적 폭력에 대한 인식과 저항" (ThM thesis,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21.

[23] 여성가족부, *유자녀가정대상 가정폭력예방교육 표준 강의안 2.0 강사지침서* (서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 91.

[24] 홍미리, 8.

[25] 이우정, *여성들을 위한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366.

[26]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05.

[27]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70-72.

[28] 한미라, *여자가 성서를 읽을 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254.

한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출발하는 것이다.[29]

D. 청중

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청중은 나 자신이다. 목회자로서, 상담기관에 종사하는 상담자로서 그들이 경험한 삶과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식 변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M. Proust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사고가 새롭게 확장되는 경험"[30]이라고 하였다. 실천신학은 모든 이론 신학의 기초를 토대로 결국에는 교회안에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31] 내 안에 편견과 선입견, 내재된 가치관을 내려놓고 내면화된 가부장주의를 해체하여 앎과 삶, 담론과 실천 사이에서 신학적인 통합이 이뤄지고 실천적인 삶을 살기를 열망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2차 청중은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가진 여성이다. 신학적 정의나 가족의 신성을 빙자하여 침묵하는 것을 정당화시켰던 것들을 해체하여 그들의 경험을 자신의 목소리로 언어화 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작은 가정폭력이 더이상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에 기반한 공적인 문제라는 인식의 확장과 젠더 감수성이 향상되어 여성으로의 삶이 아닌 인간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중은 '한국교회의 목회자'[32]와 교회 안에서 주어진 힘을 가지고 공동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지도자들이다.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의 설교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에 목회자는 관심의 수준을 넘어 의식의 전환과 새로운 방향으로의 선회를 위해 적극적 실천을 해야 할 리더이자 책임자들이다. 한국 사회가 이미 지향하고 있는 가부장제적 남성주의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평등주의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목회자에게도 요구된다. 따라서 교회내의 가부장제적인 구조에 기반한 성차별의 인식이 개선되고 확장되기 위해 목회자는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의 이야기로부터

[29]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106.

[30] 서근원,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 (서울: 교육과학사, 2012), 374-75.

[31] Richard R. Osme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실천신학의 네가지 중심과제*, trans. 김현애 and 김정형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2), 10.

[32] 여기에서 목회자란 한국교회의 남성목회자 만 칭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목회자라고 해도 여성신학적 관점이 없이 가부장적인 사고에서 성차별적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부장적인 의식으로 성차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모든 목회자를 칭한다.

들려오는 목소리에 응답할 책임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E. 연구의 범위와 제한

본 프로젝트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로 제한된다. 이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가정폭력, 특히 기독교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기독교의 가치를 왜곡되게 받아들여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억압되고 내면화되어 있어서 그 실체를 표면화하여 자료로 규명하기까지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정폭력 문제를 다룰 때 피해 여성(남성) 뿐만 아니라 가해 남성(여성)에 대해서도 같은 관심과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들이 행사하는 폭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좀 더 심층적 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다만 본 프로젝트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재경험하는 것들의 본질에 집중하고,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가운데 교회의 응답과 목회자의 책임 그리고 신학적 해석의 변화가 필요함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F. 독창성과 공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현재 주어진 고통을 겪어내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의 상황을 깊이 탐색하고 이들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목회자의 인식 및 태도의 전환에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교회 내에서 들려오는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존의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목회자의 전통적 문화의식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판단과 편견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보고자 하였다. 이제까지는 권력을 지닌 사람, 혹은 숫자적 우세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진리와 정의는 다수에 의해 결정되어 왔고, 소수의 목소리 없는 자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신과 더불어 통속적 관념에 고착되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의 모든 판단과 권력과 특권에 대해 그 힘이 가지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새로이 인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우선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2차 폭력이 재경험 되는 것에 대해 교회 공동체

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교회 내에서 성도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내재된 신학들에 대해 그 해석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한 것이 프로젝트의 독창성과 공헌이라고 할 수 있겠다.

Chapter II
질적 연구방법 및 절차 (The Qualitative Methods and Procedures)

A. 연구 참여자

본 프로젝트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경험으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 본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험의 내용을 밝혀내는 과정은 특정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서술하며,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를 거치게 된다. 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충분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경험자를 선정해 풍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프로젝트의 적절성과 충분성 즉,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찾아내고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가정폭력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참여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법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을 선정하였다. 둘째, 가정폭력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나누려는 의지가 있는 여성을 선정하였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심층 인터뷰 과정을 거쳐야 하고, 다양한 자료 수집을 위해 여러 차례의 인터뷰가 반복될 상황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가정폭력 경험을 표현하는 것은 아픈 경험을 털어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괴로움을 인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공유할 의지가 있는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충분히 표현 가능한 여성을 선정하였다.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직관할 수 있어야 하고, 참여자의 경험이 언어로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상담 현장에서 주로 만나게 되는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유형 중 가정에서 배우자와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자신의 심리변화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여성을 선정하였다.

본 프로젝트 참여자인 피해경험 여성들의 연령은 31세에서 63세였다. 참여자 중 개신교 교인이 5명, 천주교 교인이 1명이었다. 현재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참여자는 4명이었으며, 이혼한 참여자는 1명, 이혼을 고려하고 별거 중인 참여자가 1명이었다. 사례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No	성명	연령	종교	결혼 여부	학력	자녀
1	A	63	기독교	별거 중	대학원 졸	2
2	B	31	기독교	이혼	대졸	0
3	C	55	기독교	기혼	고졸	1
4	D	59	기독교	기혼	고졸	3
5	E	52	천주교	기혼	고졸	2
6	F	60	기독교	기혼	대졸	2

B. 연구 방법

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한 방법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최근 상담 분야의 연구들은 수량화하는 양적 연구 방법이 가진 한계에서 벗어나 경험의 고유성에 도달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양적 연구는 사람들의 경험을 다층적으로 충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설정된 가설과 그 검증이라는 객관적인 설명을 하는 구조 안에서 각각의 경험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 인간이 경험한 체험으로부터 출발하는 질적 연구 방법은 그 체험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준다.[33]

또한 다층적인 질적 연구는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어떻게 해석, 이해되고 경험되거나 생성되는가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 해석주의자적인 철학적 입장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 융통성이 있다는 점이다.[34] 이런 관점에서 나는 참여자의 상황 설명 방법에서 복합성, 세부사항, 그리고 숨은 복선의 이면적 의미 등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들의 내면에 접근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심층 면담 방법을 택하였다.

질적 연구는 참여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경험 세계를 전체적(holistic) 관점에서 역동적

---

[33] 신경림 et al.,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234.
[34] Jennifer Mason,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방법론*, trans. 김두섭 (서울: 나남, 2002), 21.

실체(dynamic reality)로서 알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35] 이를 위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본 주제와 관련된 문헌 고찰, 인터뷰 자료, 사례연구 등을 활용하여 인식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한 본질과 경험이 구성하는 가정폭력의 방식을 탐색하여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탐색하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기에 현상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현상학적 연구는 폭력 피해자가 경험한 개인의 고유성에서 출발하여 그들의 주관적이고 해석적인 의미를 발견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현상학적 방법 중 콜리지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콜리지의 질적 연구 방법을 택한 이유는 참여자의 익명을 중요시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폭력 피해경험의 공통적인 재경험을 폭넓게 도출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언어 텍스트를 통해 폭력을 경험한 피해 여성들의 경험과 그 경험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심층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본 프로젝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추출해낸다. 둘째,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진술한다. 셋째,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의미를 구성한다. 넷째,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 한다. 다섯째,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기술한다. 여섯째, 선행단계에서 확인된 경험 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한다.[36]

질적 연구는 연구자들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로부터 가치 객관적이란 면에서 초연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에 의하여 비판적인 자기 점검과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37] 나는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항상 숙지하고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대상을 편견 없이 관찰하며 스스로가 정직하기 위해서 시행착오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

---

[35] Deborah K. Padgett,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trans. 유태균 (서울: 나남, 2005), 27.

[36] 신경림, *질적연구방법론*, 252.

[37] Mason,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방법론*, 26.

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C. 연구 절차

질적 연구방법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자료수집의 형태는 면담이다. 면담이란 정보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하고 형식화한 것이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경험과 인식, 느낌을 직접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관점에서 사건과 사물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주요하게 보이는 문제 영역에 초점을 두게 하는 장점이 있다.[38] 이 프로젝트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실제로 현상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의 의미 부여와 다양한 생각이나 느낌, 맥락, 해석들에 의해서 보다 풍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내가 상담 사역을 하고 있는 치유상담 연구원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고 있다. 집단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후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면담에 응하는 여성 4명과 또 피해자 여성 쉼터에 의뢰하여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을 추천받아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을 하고 연구 참여자로 동의하는 자 한 명과 기존에 상담을 받았던 자 중의 한 명을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은 상담소 내에서 나의 역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라포 형성은 어렵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프로젝트 참여자와의 관계가 권력관계, 내지는 약탈의 구조로 구조화되는 점을 경계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취지를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에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주제를 중심으로 성실하게 인터뷰에 임하였다. 면담시간은 최소 90분에서 2시간 정도였으며 장소는 내가 근무하는 상담실에서 1~2차례 진행되었다.

면담 과정은 프로젝트 주제에 부합하는 질문지를 구성하여 인터뷰 가이드로 활용하였다. 인터뷰 전 인터뷰의 목적과 용도, 진행과정, 나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며, 녹음된 사항은 프로젝트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인적사항이나 특징적인 내용을 별도로 메모하여 분석과정에서 참고하고, 모두 비공개 처리할 것이며, 프로젝트 목적 달성 이후 바로 파기할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약속하였다. 신뢰

[38]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2), 324.

성(dependability)을 위해 참여자의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였다.[39] 분석의 결과는 나 자신의 선호나 특성이 개입되기보다는 참여자의 생각과 경험으로부터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나의 판단이나 사전 지식, 선입견 등에 괄호 치기를 하여 알지 못함의 자세(not knowing posture)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40]

나는 면담에 임하는 윤리적 태도로서 첫째, 내가 참여자를 만나 인터뷰를 시행하는 것은 참여자를 변화시키거나, 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와 공감을 하려는 자세로 임하였다. 둘째,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질문을 자제하였다. 셋째, 참여자의 신변에 관한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비공개 처리됨을 안내하였으며, 참여자의 경험이 노출되는 데 따르는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였다. 넷째, 인터뷰는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인터뷰 진행 과정 중 더 이상의 대화가 어렵거나 힘들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로젝트 참여 중단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설명하였다. 프로젝트 참여자인 여성들에게 적용한 면담 내용 구성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연구 문제	범주	질문 내용
가정폭력 경험의 양상과 의미는 무엇인가	경험의 의미	- 결혼 후 현재까지 정말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 그때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 가정폭력 당시 그 경험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피해 여성의 경험이 구성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방식은 무엇인가	경험의 차별성	- 나의 가정폭력 경험 중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것과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경험의 영향	- 가정폭력 경험 전후의 나의 삶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 가정폭력 경험 당시 나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 가정폭력 경험이 현재의 나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9] Mason,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방법론,* 272.

[40] 신경림, *질적연구방법론,* 236.

	경험에 대한 직관	- 가정폭력에 직면했을 때 당시의 느낌(생각)은 어떠했습니까?
	경험에 대한 대안	- 가정폭력 경험 당시 나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의미 부여	- 가정폭력 피해자란 사실을 객관화한 현재 시점에서 지난 가정폭력 경험을 되돌아볼 때 그 경험이 나에게 준 의미는 무엇입니까? - 가정폭력 경험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까지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인터뷰가 진척됨에 따라 표 2의 면담 내용 외에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와 더 구체적인 이해를 찾기 위해 프로젝트 질문이 추가로 설정되었다.

1. 가정폭력이 처음 발생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2. 말을 하거나 도움을 청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3. 신앙인으로서 폭력 경험 후 들었던 생각은 무엇인가요?
4. 교회나 목회자에게 상담한 적이 있나요?
   4-1. 상담하였다면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요?
   4-2. 들었던 성경 구절은?
   4-3. 상담은 도움이 되었는지요?
5. 교회에서 상담하지 못하였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6. 교회에 바라는 점은?

D. 연구 결과 및 자료 분석

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참여자가 전달하는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참여자와의 인터뷰 자료 분석을 통해 주요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참여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서술적으로 정리하여 의미 단위로 나누었다. 분석과정을 구성하게 된 근거는 녹음 파일과 현장 노트인 원 자료(raw data), 나의 의견 기록에 해당하는 분석 과정의 부분적으로 진행된 자료(partially processed data) 등이다.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뷰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를 받는 사람(interviewee)이 기술한 내용과 의미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는 피해경험자 특유의 어휘나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하고, 참여자에게 재확인 질문을 함으로써 내

용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녹취록과 필사된 자료를 근거로 참여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 의미들을 언어로 표현하였다. 둘째, 각각의 의미 단위별로 핵심 주제를 찾아 정리하였다. 원 자료를 중심으로 경험과 관련한 참여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 어구를 발견하려 노력하였다. 셋째, 참여자의 의미 단위들을 핵심 주제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개념적인 용어로 전환하려고 하였다. 이 과정은 나의 통찰과 가정폭력 경험이 제3자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규명하려는 의도이다. 넷째, 범주화된 자료를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연구자 스스로 다시 질문하였다. 이것은 가정폭력 경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자 하는 의미이다.

본 프로젝트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여성들의 경험에 대한 본질에 대해 알고자 일련의 경험들에 대해 인터뷰 자료를 점검하며 내용별로 코딩을 하니, 18개의 내용적 코드가 나타났다. 18개의 코드를 살펴본 결과 4개의 주제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1) 남편의 다양한 폭력 행사, 2) 아내의 피해 양상, 3) 남편의 다른 가족들과 외적 영향, 그리고 4) 개인의 신학적 해석이 발견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자료의 분석과 결과 (주제, 내용적 코드, 인터뷰 내용)

주제	내용적 코드	인터뷰 내용
1. 남편의 다양한 폭력 행사	(1) 분노 조절의 문제	- 남편이 밖에서 해결 못 한 것을 집에서 풀고 성질을 막 내고 분노가 심했어요.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폭언을 하고 화만 나면 다 박살 내고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 목사님 말만 잘 듣고 내 말은 안 듣는다고 칼을 든 거예요. - 나는 남편의 화풀이 대상이었어요. 자기가 화가 나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분노조절 장애라고 병원까지 예약해 놨는데도 안 가더라고요.
	(2) 통제	-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해줘야 좋은 아내인 거예요. 보고 배운 게 없어서 남편한테 못한다고 했어요 - 내 삶을 못 살게 하고 자기 틀 안에 나를 가두었어요 - 저의 삶은 없었어요. 새장에 갇힌 새 같았어요. 제 삶을 이해해주기보다 완전 남편 위주의 삶을 살게 했어요.

	(3) 협박	- 운전하다가 같이 죽자고 하는 걸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집 나가겠다,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협박하면 무서웠어요 -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나에게 칼을 쥐여 주고 너는 살인자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 남편이 외도사건이 있었어요.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4) 언어적 폭력	- 다른 사람 앞에서 나보고 너는 똥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아니죠. 주로 쌍년, 개 같은 년, 병신같은 년은 보통이에요 - 애들 앞에서도 너 같은 것 속에서 뭐 좋은 게 나오냐 무시해요.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5) 신체적 폭력	- 애들이 성적이 안 나와도 엄마가 뭐 했냐면서 때리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한 대만 때려도 퍽퍽 쓰러져요 - 시댁 식구 모두 있는 앞에서 뺨을 후려갈겨서 나는 애를 업고 있었는데 나동그라졌어요. - 전화기 줄로 목을 졸라 죽이겠다고 하지를 않나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6) 성적 폭력	- 결혼 전에 부모님께 인사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여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나를 못 지킨 것 같아 죄책감이 들고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 남편의 욕구가 생기면 내 기분은 무시하고 강제로 하려고 하고, 거부하면 쌍욕을 하고 난리가 나요.
	(7) 경제적 폭력	- 남편 마음에 안 들면 신용카드를 못 쓰게 차단해 놓거나 한도를 팍 줄여 놔요. - 돈을 쓸 때마다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해요 - 남편 월급에서 내 옷 하나 사는 것, 반찬 하나 사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2. 아내의 피해 양상	(1) 존재가 부정 당함	- 신혼 초부터 폭력을 당하고 살다 보니 내가 설 자리도 없고 20년 동안 완전 나는 있지마는 없는 사람, 무형으로 살았어요. 그림자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없이 살았어요 - 상대방의 평가가 곧 나였어요. 제가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를 받아들였어요.
	(2) 자기 비하	- 시댁 식구들 앞에서 폭력을 당하다 보니 내 삶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걸 찾을 수 없었어요.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 나는 틀리고 그들은 맞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 어릴 때는 아버지의 종으로, 결혼해서는 남편의 종으로 비서처럼 살았어요

	(3) 목소리 없음	- 남편한테 맞고 친정으로 갔는데 맞고 왔다는 얘기도 못 했어요. 창피하니까 친구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가정폭력을 당하고 맞았을 때도 꽁꽁 덮고 살았어요. - 교회에서 죄지어서 그런다고 판단할까 봐 말을 못 했어요. 상처를 말할 수 없으니까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살았어요
	(4) 부정적 정서	- 남편의 외도로 힘들어 정신 분열까지 왔어요. 다른 부부가 걸어가는 걸 보면 부럽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나는 쓸쓸하고 외롭고 슬펐어요. 거의 죽음과 같은 거죠 -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회피하고 감정 없이 살았어요 -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 봐 더 불안하고 공포였어요 - 결혼 생활이 암울하고 마음이 점점 병들어 감 - 하늘이 노랬어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 마음이 허해서 집중도 못 함
	(5) 폭력이 세대 전수	- 시아버지가 폭력이 심해 남편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 상처가 많아요. 남편이 애들 어릴 때부터 폭력을 해서 분노가 심해요. 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니까 아들이 아빠 얼굴을 치더라고요 우리 식구 모두 상처 치유를 받아야 해요 - 내가 시집와서 시아버님이 어머님 때리는 걸 수없이 말렸어요. 그러니 남편이 그대로 배운 거죠
3. 남편의 다른 가족들과 외적 영향	(1) 시댁에서 편 가르기를 함	- 남편이 바람피웠다고 시어머니께 말을 해도 남편 편만 들고 내편은 없었어요.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아들 걱정만 하더라고요. - 남편이 폭력 한 걸 시어머니께 말을 해도 ‘내 아들이 잘났다 때린 이유가 있었겠지’ 하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남편 편만 들더라고요. - 시댁에서 왕따를 당함 -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약점을 잡아 무시함 - 경찰에 신고했더니 “어디 교회에 경찰을 부르느냐 이 지역에 교회가 빛이 되고 그래야 하지”하며 도리어 혼내키는 거예요. - 사택이 옆에 있어 싸우는 소리가 다 들렸을 텐데 오셔서 말리거나 중재를 안 해주더라고요.
	(2) 며느리 역할 강요	- 친정어머니가 장애여도 한 달에 한두 번 친정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시댁에 자주 갔어야 했어요. 너무 시댁 위주의 삶을 요구했어요 - 다리가 아파서 김장하러 못 갔더니 며느리 도리를 못 한다고 시댁에 찍혔어요. 아들을 못 낳았으니 말도 제대로 못 해요. 나도 환자인데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아니고 간병인이에요.

		- 시댁에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일방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하고 시아버지는 노발대발 “어디 여자가” 가부장적인 말씀만 하시니 제가 점점 병들어가더라고요 - 시댁에는 남편이 요구하기 전에 내가 알아서 잘했어요. 내 남편의 부모이니까 공경해야 하고 내가 잘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잘하는 사람은 한없이 잘해야 하고 고마운 걸 몰라요.
	(3) 사모 역할 강요	- 옷차림, 화장, 신발, 스타일 다 눈치를 봤어요. 항상 새벽기도 안 오는지 시어머님이 체크 예배 시간에 빨리 안 오면 체크, 교회 설거지 체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무조건 맞춰주라고 하며 사모는 다 그러고 사는 거라고 하세요
	(4)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	- 이혼한 걸 아직 친정은 몰라요. 엄마가 알면 상처가 크실 것 같아 아직 말도 못 했어요. - 남편이 외도하는데 이혼을 안 하려고 증거를 안 잡았어요. 기도를 해도 이혼하지 말라 하고 내가 서원 기도를 했어요 - 이혼이라는 걸 생각 못 하고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4. 신학적 해석	(1) 부정적인 면	-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종교의 틀에서 해석하려다 보니 불안했죠. - 하나님이 나는 싫어하고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 폭력 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답답했어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상항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 목사님이 참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용서해야 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남편을 혼내지 못하는구나! 여자가 참아야 해? 유교를 따라가는 기독교를 경험하니 숨 막히고, 재미없고, 화가 났어요.
	(2) 긍정적인 면	- 남편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바라보는 선입견이 사라지고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준 건 나에게 힘든 사람을 위해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위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뷰 내용들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경험이 다음의 4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인 가정 내에서 수년 때로는 수십년 동안 신체적, 언어적, 성적인 폭력, 경제적 폭력, 숨막히는 통제와 억압, 분노 조절

문제로 인한 화풀이 대상이 되어 배우자의 다양한 폭력 속에 살아온 경험들을 이야기하였다.

1. 남편의 다양한 폭력 행사

본 프로젝트의 첫 번째 범주는 "남편의 다양한 폭력 행사"이다. 가정폭력의 내용은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의 통제나 경제적인 통제, 방임까지도 포함된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가부장제적인 문화가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어 그러한 문화가 익숙한 가정에서 자란 배우자의 경우 자연스럽게 가장이 대부분의 결정권과 통제권을 갖고 아내나 자식은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며 아내를 징계할 권리를 남편이 가진 특권의 일부로 여긴다.[41] 가부장제(patriarchy)란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남성 지배의 제도화된 구조이다. 그래서 아내 폭력은 가정을 다스리기 위한 남편의 역할 수행으로 간주되어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남편은 폭력 행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한다.[42] 가장의 이러한 신념과 기대는 힘의 균형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적인 차이에 의한 한계에 갇히게 되고 가정 내에서 다양한 불균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1) 남편의 분노 조절 문제

분노는 그 반응이 적절하게 통제되고 조절된다면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자신의 내적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노 반응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거나 억제된다면 분노 표출이 적대적 공격성으로 드러날 수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는 품행장애와 관련되기 쉽고, 성인의 경우는 범죄 및 가정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43] 마크 코스그로브(Mark P. Cosgrove)는 분노는 모든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정서적 반응이지만 아무렇게나 무절제하게 표출된 분노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개인적인 평화와 안정을 무너뜨리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44]

참여자들 역시 남편의 분노 조절이 어려워 부부 갈등 시 부부의 싸움이 아닌 폭력적인

---

[41] Christie Cozad Neuger, *Counseling Women: A Narrative, Pastoral Approach 여성들을 위한 목회상담-이야기 심리학적 접근*, trans. 정석환 (서울: 한들출판사, 2002), 45.

[42] 정희진, *아주 친밀한 폭력* (서울: 교양인, 2018), 108.

[43] 김교헌 and 전겸구, "분노, 적대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vol. 2, no. 1 (November 1997): 82.

[44] Mark P. Cosgrove, *Counseling for Anger 분노와 적대감*, ed. Gary R. Collins, trans. 김만풍 (서울: 두란노, 2002), 30-33.

상황으로 극단을 치달았다.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은 자신의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남편이 욱해서 화가 나기 시작하면 집안 살림들을 다 박살내거나 자기 분을 못 이겨 칼을 들거나 화풀이 대상이 되어야 했기에 임신 중에 유산이나 신체적인 질병이 발생하는 등 가정 내에서 기본적인 안전한 생활이 어려웠다.

> (연구 참여자 C)
> *남편이 밖에서 해결 못한 것을 집에서 풀고 성질을 막 내고 분노가 심했어요 그래서 애가 7개월만에 유산되고 나는 급성 췌장염으로 당뇨가 생긴 거예요.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폭언을 하고 김칫독 밟아 깨고 화만 나면 다 박살내고 집어 던지고, 키보드 같은 건 수십개를 깨서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
> (연구 참여자 A)
> *목사님 말만 잘 듣고 내 말은 안 듣는다고 칼을 들었어요.*
>
> (연구 참여자 E)
> *나는 남편의 화풀이 대상이었어요. 애들이 성적이 안 나와도 엄마가 뭐했냐? 그러면서 때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자기 화를 참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자기가 화나면 자기 컨트롤이 안되는 거죠. 내가 분명 당신은 분노조절 장애라고 병원까지 예약해 놨는 데도 안 가더라고요.*

참여자 C는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 사는게 사는게 아니었다고 말한다. 남편의 감정이 수시로 변하니까 불안하고 가정다운 가정이 아니었고 그 당시의 느낌은 마음이 허해서 집중도 못하고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살았다고 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폭력으로 상처가 많아 대인관계를 잘 못하고 분노조절을 못하고 모든 식구가 상처투성이라고 하였다. 참여자 E는 자신은 남편의 화풀이 대상이었다고 한다. 애들 성적이 안 나와도 아내 탓이고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참지 못하고 화가 나면 자기 컨트롤이 안되어 폭력을 하는 남편이라고 한다.

팀 라해이(Tim LaHaye)는 분노는 선택이다(Anger Is a Choice)고 한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화를 내는 일도 가끔은 있지만 대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자주 화를 내거나 분노를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 가해자 남편들이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화나 분노를 조절하고 통제 가능하지만 가정 내에서 약자인 아내나 자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물로 생각하여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분노 조절 못하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축소하거나 정형화해서는 안되는 지점이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중립적이다. 분노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남편의 분노 조절의 문제는 위협과 공포와 불합리한 반응이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생존의 위협과 큰 상처로 현재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 통제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은 이러한 가부장제적 사고가 지배하는 가장인 남편과 살면서 위기나 스트레스가 올 때 가정 내 약자인 아내와 자녀들에게 힘의 남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강압과 통제와 같은 비가시적 폭력이 더 폭력적이며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데 효과적이다.[45] 최근 가정폭력의 모습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서 신체적 폭력보다 언어, 정서적, 경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6] 물건이나 주먹, 손 등의 물리적, 신체적인 폭력이 범죄시 되면서 최근에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 폭력이나, 배우자의 행동을 제약하고 제한하는 통제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신체적 폭력은 배우자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가정폭력의 본질은 통제라고 할 수 있다.[47] 이서원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시선은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심리적 폭력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미국 법무부의 정의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부부 또는 친밀한 관계의 두 사람(intimate partners) 중 한 사람이 "권력과 통제를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학대적 행위의 패턴"으로서, 신체적, 성적, 감정적, 경제적, 심리적 행위가 포함되며,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협적인 행위도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겁주기, 심리조작, 모멸감 주기, 고립, 공포감 야기하기, 비난하기, 상처 주기,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기 등이 포함된다. 즉 우리 법처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상상의 피해'가 중심인 것이 아니라 '통제를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위들의 패턴'에 주목하는 것으로 비난하기나 모멸감 주기 등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유의미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통제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행위들을 가정폭력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48]

참여자들은 통제를 당하면서 결혼에 대한 불만족, 새장에 갇힌 새 같았다고 끔찍함을 표현하였다.

---

[45] 이서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사이, 가정폭력 상담의 효과와 지향점," in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성과와 과제*, ed.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8), 14.

[46]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예방교육 표준 매뉴얼 강사 지침서*, 25.

[47] 이서원, 12.

[48] 이서원, 14.

(연구 참여자 A)
결혼 후 바로 폭력이 시작되면서 그게 결혼 생활인지 꿈에도 몰랐어요.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결혼에 대한 불만족, 결혼은 사람을 메이게 하고, 자기 삶을 못살게 하고, 자기 틀 안에 가두고, 가정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존재구나!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해줘야 좋은 아내인 거예요. 보고 배운 게 없어서 남편한테 못 한다고 하고, 약도 안 해준다고 하고, 지가 돈도 안 갖다준 건 생각 안 하고 온갖 것으로 나를 짓눌렀어요. 나를 조종하려 했어요.

(연구 참여자 B)
저의 삶은 없었어요. 새장에 갇힌 새 같았어요. 자유가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이게 믿음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싶었죠. 제 삶을 이해해 주기보다 완전 남편 위주의 삶을 살게 했죠.

(연구 참여자 D)
교회를 다니는 것조차도 남편에 의해 다녔어요. 뭘 기도하라는 것까지 다 알려줬어요. 자기 직장의 승급을 위해 기도하라, 나는 새벽기도 가기 싫은데, 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 하니까 내가 신앙이 자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다른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꼭 남편이 원하는 교회를 다녀야 하고 한 번 빠지면 집안에서 싸웠어요. 남편은 율법적이고 저는 자유로운 신앙이었는데 나는 남편 때문에 다니고 싶은 교회도 못 갔어요.

참여자 A는 남편의 통제로 자신의 삶을 못살게 하고 남편의 틀 안에 가두고 뭐든지 남편의 뜻대로 하기 위해 온갖 것으로 아내를 짓누르며 조종하려 하였으며, 참여자 B 역시 새장에 갇힌 새 같았다고 했다. 자유가 없고 완전 남편 위주의 삶을 살게 하여 자신의 삶은 없었다. 참여자 D는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남편에 의해 통제와 조종을 받았다고 했다. 참여자들의 경험은 남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통제는 새장에 갇힌 새, 창살 없는 감옥 자체였다. 강남순은 가부장제는 지배계층인 남성들의 사고와 가치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현실에 대해 왜곡된 해석을 하게 하고 마치 그것이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어 허위의식을 심어주고 허위의식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온전한 해석을 못 하게 하고 가부장제를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49] 라고하였다

(3) 협박

참여자 D는 자신이 착하고 순진해서 남편의 협박이 너무 무서웠다고 하였다. 남편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참여자에게 언어폭력을 넘어 극단의 선택을 강요했고, 집을 나가겠다,

[49]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391-92.

직장을 그만두겠다, 이혼하겠다는 말로 자신을 누르는 것을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 B 역시 남편은 자신에게 대들거나 말싸움을 하게 되면 살인자라는 누명을 씌워서라도 꼼짝 못 하게 하려는 남편의 폭력성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가정폭력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신체적 폭력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으로 억압의 경험을 말한다. 참여자 D는 결혼 후 1년이 채 못 되어서 사소한 일인데도 폭력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남편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주장대로 이끄는데 아내가 자기표현을 한두 마디라도 하면 듣기 싫다 하고, 소리 지르고 명령하고 다그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같이 죽자,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등으로 협박하며 억압을 하였다. 남편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을 선택한 것이다. 고영순은 행위자가 자기의 힘을 남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갈등을 해결하는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말한다.[50] 아내를 통제하기 위해 협박하고 억압하는 것은 강요된 종속으로써 남편은 그 집안에서 힘과 지위를 가지고 아내를 구속하고 지배하는 폭력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 (연구 참여자 D)
>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에 나를 내려놓고 가고, 운전하다가 같이 죽자고 하고 그런 것은 한두 번 당한 게 아녜요. 제가 순진해서 남편말을 잘 듣다가 나이 먹어 가면서 한두 마디씩 뭐라고 하면 언어폭력으로 같이 죽자고 하고,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저는 너무 무서웠고 남편은 집을 나간다고 했어요. 내가 무서워하니까 남편은 그걸 써먹었던 것 같아요.*
>
> (연구 참여자 B)
> *말싸움이 심해지면서 격하다가 욱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식칼을 내 손에 쥐여 주면서 벽으로 밀치면서 차라리 자기를 죽이라고 배를 들이 밀더라고요.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네 손에 칼을 쥐여 줬으니까 까딱 잘못하면 너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까불지 말라는 거죠. 완전 자기 권력과 힘으로 누르는 거죠. 그게 남편이었고 목사님 이였고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
> (연구 참여자 D)
> *남편이 외도 사건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동창 모임하고, 내가 그걸 봤거든요. 그때 내가 주변에 알렸어요. 알리기는 했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또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못하고 쏙 들어가더라고요.*

(4) 언어적 폭력

참여자 A는 남편의 다양한 폭력 행사 중 언어적 폭력의 경험을 고백하였다. 평소에도 욕은 기본으로 시작하고, 술을 마시게 되면 혼잣말을 하거나 시비를 걸고 점점 심한 욕으로

[50] 고영순, "관계사이에 흐르는 힘(Power)," *목회와 상담* vol. 4 (December 2003): 138.

풀어내는 남편을 못 견디며 힘들어하였다. 참여자 D 역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해서 아이들이 배울까 봐 너무 싫었는데, 친정까지 무시하면서 비난할 때는 정말 비참함을 경험하였다. 언어폭력은 일상적인 대화였으며 신체적 폭력 시에 언어폭력은 자동으로 동반되었으며 그로 인한 고통은 신체적 폭력만큼 절망케 하였다.

언어, 정서폭력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고 상처가 없어 폭력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지만, 신체폭력보다 피해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율성을 침해하며 심리적인 상처와 고통을 동반한다. 상대방에게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비난, 협박, 대화 거부, 무시, 지시, 위협적인 행동 제스처를 보이는 것, 외부와 접촉을 못 하게 하여 고립시키거나 자녀를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반려동물이나 가정집기 등을 부수는 것,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 등이다.[51] 한국사회에서는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행동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폭력 정도는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여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폭력을 일상화, 정상화하게 된다.[52]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이야기한다. 한 사람이 갖게 되는 자신에 대한 개념은 그가 인식하고 그가 경험하는 언어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은 가정내 에서조차 수용과 공감의 언어가 경험되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설과 비난에 의해 규정되는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였다.

> (연구 참여자 A)
>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너는 똥이다" 고 하는 사람이에요. 비인간이죠, 인간이 아니 에요. 술을 먹으면 대화하자면서 항상 나를 비난하고 꼬장거려요. 주로 쌍년, 개 같은 년, 병신 같은 년은 보통이에요.*
>
> (연구 참여자 D)
> *애들 보는 앞에서도 너 같은 것 속에서 뭐 좋은 게 나오겠느냐고 무시하고 친정에서 배운 게 그것이냐고 비꼬고 네가 집안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해요. 애들 데려다 앉혀 놓고 네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요.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애들 앞에서 비참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가정이 아니었어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5) 신체적 폭력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사상의 영향으로 남성 중심의 위계질서가 가정과 사회의 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를 소

---

[5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예방교육 표준 매뉴얼 강사 지침서*, 24.

[52] 정희진, *아주 친밀한 폭력*, 45.

유물로 인식하여 가족이라는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관계에서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 인식이 어렵다. 토니 포터는 남성들만의 특권과 그릇된 남성성의 사회적 학습이 집단적인 강요를 통해 남자다움으로 정의되어 Man Box에 갇혀 있다고 한다. 남성성의 집단 사회화 교육으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자 성적 대상화되어 가정폭력, 십대 데이트폭력, 성폭력, 성매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53] 또한 이런 사회적 학습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파고들어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조금씩 꾸준하게 이뤄져서 사회적으로도 널리 용납되어 그것이 크게 문제라는 의문조차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54]

남성 위주의 성차별 사회가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과 학대의 근원이다.[55] 폭력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가장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해자가 선택한 행동이다. 신체적 폭력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두려움과 육체적 상해,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흉기를 사용하거나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기, 꼬집기, 물기, 목 조르기, 침을 뱉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56] 참여자 E와 F, D는 신체적 폭력에 의한 힘의 남용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 (연구 참여자 E)
> *애들이 성적이 안 나와도 엄마가 뭐 했냐면서 때리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한 대만 때려도 퍽퍽 쓰러져요. 저번에도 머리를 때려서 빙빙 돌고 별이 보일 정도인데 남편은 꿀밤 줬다고 하잖아요.*
>
> (연구 참여자 F)
> *시댁 식구 모두 있는 앞에서 나를 그냥 뺨을 후려갈겨서 애를 업고 있었는데 머리를 액자에 부딪히고 나동그라졌어요.*
>
> (연구 참여자 D)
> *어느 때는 전화기 줄로 제 목을 졸라 죽인다고 했어요. 온몸이 멍이 들고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옷을 걷어 팔과 다리, 등에 퍼렇게 멍든 자국을 보여준다) 언젠가는 제가 맞아 죽지 싶어요.*

(6) 성적폭력

여성이 자신의 옷차림을 자기표현의 방식이나 상황에 맞게 입기보다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평가를 의식한다거나, 또한 옷차림에 대해 이성에게 보이는 노출 수위를 염려해야 한다면

---

[53] Tony Porter, *Man Box 남자다움에 갇힌 남자들*, trans. 김영진 (서울: 한빛비즈, 2018), 15-18.

[54] Porter, 15.

[55] Porter, 17.

[56]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예방교육 표준 매뉴얼 강사 지침서*, 24.

이러한 사회를 안전한 사회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성들이 남성에 의해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동을 강요당하거나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문화라면 여성의 성적 폭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회현상일 수 있다. 성적 욕망의 해소를 당연한 남편의 권리로 생각하고 아내에 대한 성적 침해도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는 것이다.[57] 그들은 도리어 폭력적인 행위를 사랑의 행위로 오인하여 힘과 통제의 관계로 치환되어 있음에도 명백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 또한 왜곡된 인식으로 내면화되어 스스로 폭력을 당해야 맞다고 생각하기도 한다.[58]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Me Too 운동 역시 남성 중심의 위계질서와 힘의 남용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 D와 B 역시 가장 친밀하고 상호적인 성관계에서조차 남성의 지배로 경험되었다. 결국 참여자 D는 자신을 비난하며 수치스러움을 간직하며 살고 있었고, 참여자 B 역시 강제와 억압으로 인한 성적인 폭력에 언어적 피해까지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겪는 남편의 일방적인 성적 강요로 힘든 것 중의 하나는 남편이 폭력을 한 후 바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으로써 '부부강간'[59]이라고 표현하며 하찮은 물건 취급을 당하고, 자신이 마치 동물 같았고 이로 인한 수치감과 혐오감으로 힘들어했다.

> (연구 참여자 D)
> *결혼 전에 남편한테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때 내가 대항도 못 하고 부모님께 인사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여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때부터 성에 대한 가치관이 혐오스러움으로 바뀐 것 같아요. 나를 못 지킨 것 같아 죄책감이 들고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 (연구 참여자 B)
> *남편이 자기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지, 욕구가 올라오는지 내가 원치 않는데 내 기분은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어요. 내가 거부를 하니까 자기를 범법자로 만들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미친년이 또 지랄한다고 쌍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

[57] 변신원,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의 이해," in *폭력예방전문강사 통합전환과정* (서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 42.

[58] 변신원, 42.

[59] 과거 형법상으로는 강간죄가 '정조에 관한 죄'라고 규정하여 부부사이가 아닐 때 성립되었지만 2009년도 이후 부부라 해도 부부강간죄가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강간죄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으로 인정하여 성관계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결정 내리지 못하도록 한다 거나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부부강간죄 성립의 개념은 '부부'라는 '관계'에 관한 것보다 '각자 개개인의 인간으로 서의 권리'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7) 경제적 폭력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경험 중에 중첩되는 지점들이 경제적 폭력이었다. 경제적 폭력은 모든 경제권을 남편이 손에 넣고 정당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아내를 통제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알뜰하고 살림을 잘한다는 뜻은 남편이 원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부분으로 드러났다. 참여자 D는 남편의 마음에 안 들거나 아내가 자신의 통제권 안에 안 들어오면 카드를 정지시키거나 사용 한도를 줄여 놔서 마트에서 장을 다 봤는데 카드가 정지당해서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은 경험이 자주 있었다며 자존심 상함과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집에서 네까짓 게 하는 일이 뭐냐, 돈 쓰는 일만 잘한다는 등 무시를 당하고 경제적인 폭력을 경험하는 피해 여성들의 지배적인 정서는 자신의 자율성이 훼손당하고 자존감이 손상되는 경험과 눈치를 봐야 하는 서러움을 고백하였다.

(연구 참여자 D)
남편 마음에 안 들면 신용카드를 못 쓰게 차단해 놓거나 한도를 팍 줄여 놔요 너한테는 10원도 못쓰게 하겠다면서 카드 내놔라. 그래요.

(연구 참여자 F)
돈을 쓸 때마다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해요

(연구 참여자 B)
남편 월급에서 내 옷 하나 사는 것, 반찬 하나 사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2. 아내의 피해 양상

본 프로젝트의 두 번째 범주는 “아내의 피해 양상”이다. 피해 양상의 내용은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험, 자기 비하, 목소리 없음, 부정적 정서, 폭력이 세대전수 되는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1)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험

힘의 남용이 사용되는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수단인 가부장제적 가치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피해경험 여성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경험 여성들의 경우 그 존재에 대한 부정을 경험하게 된다. 가부장적 결혼이라는 조건 속에서 가족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닌 도구적 관계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다 없어지는’ 경험을 하며 ‘자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여성들이 키워온 삶의 왜곡된 태도이

다.[60] 나는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결혼이라는 제도조차 가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폭력의 실제들을 마주하였다. 그 결과 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은 남편에 의해 새롭게 정의되는 자신을 만나야 했다. 참여자 C와 D는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오면서 자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해야 하는 실존을 경험하였다.

> (연구 참여자 C)
> *신혼 초부터, 신혼여행 갔을 때부터 자기 걸음을 못 따라온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폭력이 시작되었어요. 내가 설 자리도 없고 내 마음이 허해서 집중할 수도 없고 나는 뭔가? 나는 전혀 없었어요. 가정다운 가정도 아니고 20년간 나는 없었어요. 있지마는 무형,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 (연구 참여자 D)
> *친정 부모님이 자주 싸워서 아버지가 집 나간다고 하고 엄마는 죽는다 하고, 아버지한테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집을 탈출하려고 결혼을 빨리했는데 친정아버지도 무섭고 두렵고 하니까 남편도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전부 다 무서웠어요.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시누이도 다 무서웠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 내가 없었어요. 남편이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나였어요. 상대방의 평가가 곧 나였어요. 제가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를 받아들였어요.*

(2) 자기 비하

가정폭력 피해경험자들의 고통, 증상, 왜곡된 자기 경험 등은 폭력 경험 이후 자기 비하라는 부정적인 감정들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잘못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 상대방의 평가와 일치되게 하려 노력하는 태도도 보였다. 가부장제적인 가치는 남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양육 받고 자란 여성들에게도 내재되어 있어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갈등 상황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것으로 상황에 적응하려 하였다. 참여자 B는 남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시댁에 가서 먼저 무릎 꿇고 빌었으나 일방적인 비난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수용 받지도 못하고 스스로 공모하며 병들어 갔음을 고백하였다.

> (연구 참여자 F)
>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남편의 폭력을 당하고 나니 제 삶이 굉장히 슬프고 억울하고 두렵고 내 삶이 초라하고, 내가 비참하고 저라는 것에 대해 좋다는 것,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저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찾을 수 없었어요.*

> (연구 참여자 D)
> *어릴 때는 아버지의 종, 결혼해서는 남편의 종으로 살았어요. 모든 걸 바래요. 내가 종처럼 살았으니까 비서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걸 원해요. 나를 액세*

---

[60] 김혜련, *남자의 결혼 여자의 이혼*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2012), 161.

서리처럼 여겨요.

(연구 참여자 B)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남편을 더 좋아하나? 그 속에 있을 때는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맞는 것 같고, 내가 틀린 것 같고 하니까, 하나님은 목사의 직분 그 사람들만 사랑하시나 하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나쁜 년인가? 내가 사모 역할을 못 했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았어요. 시아버지한테도 제가 마지못해 살아야 하니까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어쨌든 저도 조금은 잘못한 게 있을 테니까, 근데 남편은 한 번도 우리 집에 와서 빈 적 없거든요. 저는 두세 번 시댁에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저만 잘못한 게 아닌 데 일방적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해야 하고, 시아버지는 노발대발 "어디 여자가" 그러면서 가부장적인 말씀만 하시고 군대 문화가 심한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요. 마음이 점점 병들어가더라고요. 1년 2개월이면 신혼인데 그렇더라고요.

(3) 목소리 없음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참여자들은 그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고 침묵하게 되므로 가해자와 공모가 이루어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침묵은 자기 비하와 함께 드러나는 비밀스러운 자신만의 이야기가 되어 참여자들을 조금씩 가둬 가고 있었다. 참여자 D는 폭력의 강도가 심해졌지만 잉꼬부부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 남편과 함께 자신들의 가치를 왜곡되게 공모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는 동안 참여자 C와 마찬가지로 점점 무기력 해졌다. 참여자 A는 하나님에게만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인 행동 없이 종교 중독에 빠졌다고 고백하였다.

(연구 참여자 D)
남편한테 맞고 친정으로 갔는데 맞고 왔다는 얘기도 못 했어요. 점점 폭력의 강도가 심해졌고 내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도 남편한테 대항도 못 하고. 가정폭력을 당하고 맞았을 때도, 싸웠을 때도 꽁꽁 덮고 살았어요. 교회에서는 아주 잉꼬부부이고 바람직한 부부인 줄 아니까 얘기를 못 했어요.

(연구 참여자 A)
창피하니까 친구들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 승진에 지장이 있을까 봐 말도 못하고,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한테만 말하는 거지, 종교중독으로 빠진 거죠. 목사님은 참고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 법도 없으니까, 구제도 안 해 줬으니까, 말해 봤자 이렇게 살아야 하니까, 깜깜하고 암울했죠.

(연구 참여자 C)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친정엄마에게는 걱정할까 봐 말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교회에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걸 몰랐어요. 교회 안에 상담소도 없었어요. 또 내가 다닌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라 판단하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율법적인 교회여서 사람들이 병이 나거나 집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죄지어서 그런다고 교인들이 판단하니, 나는 내 의가 있어서 상담받을 수가 없었죠. 나를 판단할까 봐 30대는 말을 못 했어요. 대인관계를 할 때도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녀가 어떻다, 남편이 어떻다 얘기를 하는데 나는 창피하니까 말을 못 하고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상처를 말할 수 없으니까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살았어요.

(4) 부정적 정서

자신에 대한 비하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험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왜곡된 자기 개념들을 형성해 가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 안에서 일치되지 않는 경험을 고백하였다. 참여자 A에서 잘못은 외도 당사자인 남편에게 있음에도 죄책감과 괴로움으로 인격 살인을 당한 건 배우자인 참여자 A였다. 참여자 F 역시 폭력의 원인을 내면화하여 위축되고 눈치를 보며 우울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참여자 B는 사람들과의 관계 영역에 있어 자기 삶의 패턴에 영향을 받아 부정적인 사고가 많아지고 사람들에 대해 의심이 많아짐을 고백하였다. 단지 과거의 상처가 아닌 현재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 시 두려움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에 분노하기보다 수치심을 느끼며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A)
남편의 외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일, 막 정신 분열까지 왔어요.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 상처는 평생 가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완전 신뢰가 깨졌죠. 이미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해버렸는데 이미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죠. 그때 그걸 삭이는데 가장 힘들었어요. 거의 죽음과 같은 거죠. 죽인 거지, 인격살인이지, 나는 그냥 숨 쉬니까 살아 있는 거지, 완전 폭력이죠.

(연구 참여자 F)
결혼할 동서도 있었는데 그 앞에서 뺨을 맞고 나니 진짜 창피하고 억울하고 비참하고 겁나고 무섭고 말할 수도 없었죠. 그 뒤로는 수치심, 두려움,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진짜 이게 현실인가? 현실을 피하고 싶고, 외면하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도 연장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위축되고 그때부터 기가 팍 죽었어요. 완전히 위축되고 이제는 시댁 식구가 다 두렵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고 눈치를 더 보게 되고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라는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고 계속 우울하게 살아왔어요.

(연구 참여자 B)
결혼 전에는 가정에 장애와 가난이 있어도 마음은 제가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후, 가정폭력을 당하고 나니까 부정적인 사고가 많아졌고 트라우마처럼 칼만 보면 그 생각도 나고, 설교를 듣거나 교회 사람들을 보면 내가 예전에 보던 그 밝은 모습들이 곧이곧대로 안보이고 저 사람들은 과연 가정생활은 어떻게 할까? 이중적인 모습은 어떨까? 마음이 완고해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사람을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대개 불안하고 두렵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더라고요

(5) 폭력의 세대 전수

초기 가족치료 이론 중 보웬(Murray Bowen)의 다세대 전수 모델은 가족 내 만성 불안이 삼각화와 핵가족 정서 체계에 영향을 미쳐 세대 간에 전수가 된다고 하였다. 개인이나 관

계의 역기능이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되며 점진적으로 불안과 융합에 취약한 개인이 양상 된다고 보는 것이다.[61] 보웬은 개인과 가족에 대한 정서개념을 사회적 정서과정(societal emotional process)으로 확장하였는데 한국 사회처럼 분단국가가 가지는 만성 불안은 수직적 스트레스로 가정 내 불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분화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기에 사회의 스트레스를 수평적으로 경험함을 이야기하였다.[62]

참여자 C는 남편에게서 시아버지의 영향으로 세대 전수된 폭력을 경험하였다. 시아버지에서 남편으로 그리고 이어 아들에게 전수되는 폭력을 본 참여자는 혼란스러운 관계성을 경험하고 있다.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맥락적인 구조 안에서 이러한 역기능을 해석해 내야 했으며, 참여자 A 역시 상처가 많은 남편과 폭력적인 남편 사이에서 힘들어하였다. 참여자 E는 자신이 시어머니를 시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말리다가 이제는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당하는 폭력에 대해 보호받고자 시부모에게 이야기하며 남편이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로 경험되는 세대 간 전수를 경험하였다.

> (연구 참여자 C)
> *남편도 어릴 때 시아버지께서 군인이셨는데 억압, 명령, 무시, 통제, 폭력을 당하고 살아서 방어가 심하고 겉과 속이 굉장히 달라요. 아버님이 발로 차면 나가떨어지고 사랑을 못 받고 맨날 혼만 났다고 해요. 지금 보니 남편도 사랑을 못 받고 자라 상처가 많은 거예요. 애들한테도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차려, 열중서 해서 못하면 딸한테도 빰을 때리고, 아들 한 테도 뭘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배를 손으로 퍽퍽 때리고 그러니 애가 무서워서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항도 못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일진한테 매 맞고 다니고 아들이 상처가 많아 대인관계를 잘 못 하고 분노 조절을 못해요. 애들이 아버지가 폭력 하는 걸 봐서 어릴 때 '아빠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남편이 뭐라고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치더라고요. 우리 식구 모두 상처 치유를 받아야 해요.*
>
> (연구 참여자 A)
> *집안 내력이에요. 시아버지가 애들 앞에서도 시어머니한테 욕하고 시아버지가 외도해서 첩이 아예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시어머니를 쫒아낸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어릴 때 새엄마와 살면서 초콜릿도 사주고 하니까 좋아했대요. 철이 없었던 거죠. 나중에 크면서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남편은 매번 나에게 실망을 주는 건 아니지만 변덕이 죽 끓듯 해요. 잘했다 못했다 항상 못하는 건 아녜요. 극을 달려요. 차라리 평균이면 좋겠어, 잘할 때는 이 사람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때는 막 울고 그래요. 나를 사랑한다고. 미친놈 아니야? 어 휴~ 상처가 많아서 그래, 내가 남편이 상처가 많은 것은 불쌍해서 살지, 폭력성 때문에 못사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지 맘대로 안되면 칼을 들고 하니까*

---

[61] 정문자 et al.,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18), 156.

[62] 정문자 et al., 159.

(연구 참여자 E)
그때는 시댁에서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때려서 못 살겠다고 위층에 올라가서 시부모님께 말했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 제대로 때리지도 못했다고 하더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얘기를 다 했는데 환경이라는 건 무시를 못 하나 봐요. 내가 결혼해서 시아버님이 시어머님 때리는 걸 수없이 말렸거든요. 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한편으로는 너도 참 불쌍하구나! 피해자구나! 생각이 들다 가도 일단은 내가 당하는 사람이니까 당할 때는 용서가 안 되지

3. 남편의 다른 가족들과 외적 영향

본 프로젝트의 세 번째 범주는 "남편의 다른 가족들과 외적 영향"으로 시댁에서 편 가르기를 함, 며느리 역할 강요, 사모 역할 강요,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폭력에 대한 용인의 문화가 매우 보편적 담론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 역시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의 고백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가 가진 전반적인 순응에 대한 요구와 무감각한 분위기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적인 조직적 힘의 남용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제임스 폴링(James Poling)은 힘의 남용과 폭력에 의해 상처받은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대변하고자 했던 목회 상담학자이다. 폴링은 주로 여성과 아동의 성폭력 피해자들에 관해 관심이 있지만, 사회적 억압과 힘의 남용에 있어서는 가정 폭력 피해여성들의 고통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은 힘이 남용되는 주된 수단을 가부장제적인 문화로 보기 때문이다.[63] 특히 한국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의 피해경험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 할 가장 앞선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64]

(1) 시댁에서 편 가르기를 함

참여자 E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비난을 받으며 이혼 선택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해야 했다. 참여자 C 역시 시어머니와 남편의 융합관계에서 자신들만의 유대감으로 기득권 행사를 하였다. 참여자 B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편에서 서서 아들은 좋은 사람, 교회는 빛이라는 공식화된 언어로 편 가르기를 하였다. 시댁은

---

[63] James Poling, *Understanding Male Violence: Pastoral Care Issue 교회안의 남성폭력*, trans. 박중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4), 169.

[64] 이재윤, "5년 새 가정폭력 5배 증가 … 피해자 75% 이상 '여성'," *연합뉴스*, May 19, 2017, https://www.yna.co.kr/view/AKR20170519040300065?section=popup/print.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집계된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총 12만 9천 540건으로, 2012년 8천 762건에서 2016년 4만5천614건으로 5배이상 증가했으며 피해자 75%이상 '여성'이다.

폭력을 행사한 게 죄라는 인식조차 없이 경찰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만 참여자를 비난하였다. 폭력 사건 속에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도움을 받기보다 도리어 피해자의 행동에 혐의를 두고 문제시하였으며, 남편의 행위는 가족, 친족을 넘어 교회공동체 안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었다. 남편만 믿고 시골에서 살림을 시작한 참여자 B는 지역 사회에 기반한 남편의 경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한 채 스스로 힘이 없는 존재임을 확인해야 했을 때 가장 외롭고 힘들었다고 고백하였다.

> (연구 참여자 E)
> *남편이 폭력을 하니까 내가 이번에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분명히 때리지 마라, 때리면 신고하겠다고 해도 남편이 때린 거니까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안 살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댁에서 이번 일이 생기니까 '네가 잘한 게 뭐 있는데?' 하는 거예요. 이혼할 거면 오지 말고, 이혼 안 할 거면 오라고 그래요. 시댁 어른이 중재를 안하고 무슨 시댁이 오라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댁이라면 시금치도 싫어하는 거예요.*

> (연구 참여자 C)
> *남편이 바람피웠다고 시어머니한테 말을 해도 남편 편만 들고 아들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아들 걱정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니까 애들을 손에 딱 쥐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래라저래라 하고 돈 같은 것도 남편을 통해 다 달라하고 뭐든지 남편하고만 의논해요. 고모들도 오십이 넘어도 시댁 가족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어머님이 달라고 하면 빚이라도 내서 나 몰래 갖다주고 경제적인 것부터 모든 게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니 내 자리가 없고 가정다운 가정이 아니었죠.*

> (연구 참여자 B)
> *남편 하나 믿고 시골로 시집을 갔는데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면 화해를 해야 하는데 남편은 나를 방임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곳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완전 자기 세상인 거예요. 학연, 지연 꽉 잡고 있으니까 사택에서 폭력이 있어도 쉽게 덮을 수 있는 거죠. 거기서는 한 마디도 못 하겠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누워서 침 뱉기가 되고 마지못해 시어머니께 얘기해도 "내 아들이 잘났다 때린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담임목사님 큰 사모님한테 얘기해도 "사모는 원래 그렇다 어디 교회에 경찰을 부르느냐 이 지역에 교회가 빛이 되고 그래야 하지, 어디 이 촌 교회에 얼굴을 다 알고 그러는데 경찰을 부르느냐" 그러시고 싸우는 소리가 옆 사택에 담임목사님이 사셔서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오셔서 말리거나, 중재하거나, 상담을 해주거나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학연·지연이 되게 세었고 저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게 가장 외롭고 힘들었어요.*

(2) 며느리 역할 강요

홍효정은 교회 내에서 남녀의 역할 분담이 이원화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65] 그러나 교회까지 확대하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 내의 이원화된 역할은 1%에도

[65] 홍효정, "페미니스트 신학의 교회론 연구" (MA thesis,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18), 22.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출산율로 많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66] 일반적인 분위기는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와 취업으로 사회 환경이 변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더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생물학적으로 나누는 것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현실에서는 오래된 역사만큼 여전히 그 가정과 사회적 환경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사회화를 통해 성 역할을 배우고, 이는 교육, 미디어, 가족, 종교, 공공정책과 다른 사회 기구들을 통해 유지되고 강화되며 확산한다.[67]

참여자 B는 시댁과 친정의 가치가 균형적이지 않은 등가를 가짐을 실감해야 했다. 남편 위주의 삶이었기에 당연히 시댁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것이다. 참여자 F는 심지어 아들을 생산하지 못한 조선 시대의 며느리의 역할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였다. 여행을 가거나 기타 좋은 것은 시댁 식구들끼리만 함께 하고, 병간호와 같은 힘든 일은 며느리의 몫이었다.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시어머니 병간호는 당연히 며느리가 하는 것으로 경험하였다. 참여자 E는 자신 스스로 내면화된 가부장제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나름 애를 썼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한국 사회에 효라는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참여자 스스로 실천하고자 하였으나, 그러한 마음은 시댁 식구들에게 수단으로 사용되고 대상화되어, 며느리 역할을 못 할 때는 욕을 먹고 잘할 때는 당연하게 여겨졌다고 고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역할과 기능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할 뿐 존재론적인 자신은 경험하지 못했다.

> (연구 참여자 B)
> *친정어머니가 장애가 있고 내가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서 돌봐 드려야 한다고 결혼 전에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다 괜찮다, 안아주겠다, 그게 뭐 흠이 되느냐 그랬는데 결혼 직후에는 그걸 빌미로 무시를 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남편을 믿고 시집을 갔는데 결혼 직후에 한 말이 왜 이런 것도 못하냐? 시어머님이 가까이 사셨는데 거기는 자주 갔어야 했고 친정에 가는 것은 눈치를 봤어야 했고 왜 친정에 가느냐? 언제 오느냐? 너무 자기들 위주의 삶을 요구했었고 역할에 대해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삶을 이해해주고 채워주려고 하기보다는 완전 남편 위주*

---

[66] 허정원, "출산율 0.92명 … 세계 꼴지 기록 또 경신," *중앙일보*, February 27, 2020, https://news.joins.com/article/23716520.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 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

[67] 고미경, "젠더기반 폭력 방지 정책의 이해," in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관리자 리더십과정 2차*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 47.

의 삶을 요구한 거예요.

(연구 참여자 F)
그저 시댁 어른들 눈치 보고 인정받기 위해 급급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결혼 전에는 학교 교직에도 있었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조선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가둬진 옥살이 같은 삶. 제가 또 딸만 둘 낳고 아들을 못 낳다 보니 저도 할 말을 못 해요. 힘이 없어요. 제가 알바를 한 달 동안 하느라 김장 때 못 내려가고 이번에는 다리가 아파서 못 내려갔더니 제가 코너로 몰린 거예요. 시댁 안 내려오는, 시댁 안 돌보는 그런 며느리로 다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 있고 여행 갈 때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다니고는 인제 와서는 '너도 며느리인데' 하며 사람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슐린 맞아가며 정신과 약 먹어가며 병원에 와서 시어머니 간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며느리가 아니고 간병인 거예요.

(연구 참여자 E)
시댁에는 남편이 요구하기 전에 내가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시댁이 저한테 잘하든 못하든 그건 내 남편의 부모이니까 어른을 공경해야 하고 저버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내가 잘하면 모든 게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이 가정은 그게 안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한없이 잘해야하고, 안 하면 욕먹고,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잘해도 고마운 걸 몰라요.

(3) 사모 역할 강요

잘못된 신학은 그 힘의 남용을 오히려 지속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고통 역시 영속화된다. 특히 기독교인으로 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교회의 가치가 부여하는 억압과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여 순응하게 하거나 스스로 자기에 대한 역할을 내면화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믿음을 손상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소외시킬 수 있기에 더욱 고통에 머무르는 구조를 생산해 내게 될 것이다.

참여자 B는 담임 목회자 사모에게 마음을 열고 도움을 청하였으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침묵할 것을 강요하며 사모로서 처신을 잘하라는 충고를 들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지하기도 전에 눈치부터 봐야 했고, 목사인 남편을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며 죄책감을 느끼기까지 하였다. 교회 내에서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대신하는 목회자가 남편인 경우는 더더욱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중 구조로 더 힘들었음을 고백하였다.

(연구 참여자 B)
시골교회 사모로 갔는데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옷차림 하나, 화장, 신발, 스타일, 예배 시간에 조금이라도 빨리 안 오면, 교회 설거지, 교회 어른들의 보수적인 것 다 모든 걸 눈치를 봤어야 했어요. 사모로 서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엄마가 장애가 있어서 친정에 가는 것도 담임 목사님의 눈치를 엄청나게 봤어야 했어요. 교단 사모 모임이 있는가 봐요. "어제 어떤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에게

맞아서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나와도 쉬쉬한다. 원래 사모님은 다 그렇게 산다. 그리고 사탄은 교회를 무너트리기 위해서 그 가정을 먼저 건드린다. 무조건 맞춰 줘라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저는 한 가닥 희망으로 그렇게 손 내밀었는데 어머니뻘 되시는 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이상 그 소굴에서 손을 내밀 대가 없더라구요.

(4)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

한국 사회에서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폭력적인 문화에 순응하거나 무감각해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자에게 결혼의 실패는 단지 결혼 자체의 실패라기보다는 자기 삶의 영역, 세계를 잃는 존재의 위기로 경험되어 실제로 이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 경제적으로 살길이 막히는 경우가 허다하다.[68] 자녀의 양육환경과 경제적 자립이 불투명하기에 참여자들의 현실은 이혼하지 않기 위해 폭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혼이라는 행위 자체로 비난의 대상이고 사회에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조차 개인에게 돌려지는 현실 앞에서 이혼은 비정상이며 불행하다는 획일적 담론과 통념으로 참여자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었다.[69] 부모가 되었기에 자녀에 대한 책임감으로 견디고 견디어 보지만 결국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실패라는 부정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고, 이혼하려는 자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승인이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취약한 정서 상태이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상 참여자 B는 이혼한 사실을 엄마가 상처 받을까봐 알리지도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참여자 A의 친정엄마조차 가부장제적인 사고 안에서 남자들이 다 그렇다며 순응하고 무감각해지기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부모라는 책임을 지기 위해 버텼지만, 남편이 흉기를 들고 협박했을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집을 나왔는데, 그것이 남편이라는 감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B)
제가 집 나온 지 꽤 되었는데 10개월이 넘어가요. 이혼했지만 친정은 아직 몰라요 00장애 엄마가 알면 되게 상처가 크실 것 같고, 근데 열심히 살려고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억울해서라도요.

(연구 참여자 C)
남편이 외도하는데 이혼을 안 하려고 내가 증거를 안 잡았어요. 끄덕하면 남편은

[68] 김혜련, *남자의 결혼 여자의 이혼*, 33.

[69] 김혜련, 168-69.

'증거 대봐' 그러는데 사람을 미쳐버리게 해요. 그런 남편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혼하지 말라 하고 벼랑 끝에서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연구 참여자 E)
결혼하자마자 처음부터 그런 기미가 보였는데 화가 나서 그러려니 했는데 원래 보고 배운 게 그거더라고요. 나는 남편의 화풀이 대상이었어요. 그때는 젊기도 했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나이에는 이혼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상처받고 애들 때문에 참고 산 거죠. 애들 때문에 많이 참아 준 거죠.

(연구 참여자 D)
남편이 폭력을 할 때는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혼 생각도 못 했고 헤어진다는 생각도 못 했어요. 모든 걸 남편을 의지했었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걸 남편 이름으로 해 놨고, 실제로 내가 이혼하려고 했을 때 홀로 설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 명의로 재산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연구 참여자 A)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한테 말했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엄마 남편이 새벽에 들어오고 속 썩이고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휴~ 남자는 다 그런다, 그런 것도 안 하는 남자가 어디 있다냐?" 우리 엄마까지 그러네, 그러니 우리 엄마 살아생전에 이혼을 꿈꾸겠어요? 우리 엄마가 난리 나죠. 충격받죠. 우리 엄마는 그 시대 사람이니까. 남편이 외도를 한두 번도 아니고 정신 분열까지 왔는데 내가 애들을 낳았으니까 부모로서 역할을 하고 키워야지 하고 그것 때문에 산 거지. 그런데 칼을 들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못 살겠더라고. 결론은 내가 집을 나온 것으로 내 큰 소리를 낸 거예요. 내가 너무 시원하고 통쾌해요. 남편의 감옥으로부터 구원받은 느낌이에요. 내가 나에게 매일 칭찬해줘요.

4. 가정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신학적 해석

본 프로젝트의 마지막 범주는 신학적 해석이다. 가다머는 해석은 해석자가 가진 역사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았다. 각자가 가진 선이해(preunderstanding)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다른 두 지평의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해석 작용은 지평의 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된다.[70]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은 그러한 지평의 융합이 아닌 일방적인 식민지화를 요구받거나 침범당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가진 신학적 해석들이 새롭게 재해석 되어야 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1) 부정적인 면

참여자 A는 자신의 신앙적 열심을 남편이 신앙이 부족해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는 것으로 여겨 종교 중독에 빠졌다고 한다. 남편의 폭력이 먼저 있어서 믿음으로 이겨내려 하였으

[70] Hans Geor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진리와 방법 II,* trans. 임홍배 (서울: 문학동네, 2012), 494-95.

나 이후 남편의 폭력이 신앙적 핍박으로 재해석되면서 남편과의 사이가 더 멀어지는 부정적인 신학적 해석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 F는 시댁 식구 앞에서 당한 폭력으로 엄청난 수치감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거리를 느끼고, 자신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아 죄책감으로 답답하고 힘들었음을 고백하였다. 참여자 B는 결혼 전에는 교회에 대해 따뜻하고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결혼 후 폭력을 당했을 때 자신의 편이 되어 주지 않는 목회자와 사모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권력욕과 교회의 불평등과 불의를 보게 되었고 힘없는 자신이 교회 안에서 포용 되지 못하고 배제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후 참여자 B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고, 신앙인들의 이중성과 믿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 A는 남편의 폭력을 목회자에게 상담했을 때, 기독교인이니까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숨이 막혔고, 교회에서 남편의 폭력을 묵인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A는 그런 기독교를 보면서 유교를 따라가는 기독교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였다.

> (연구 참여자 A)
> *기독교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이, 남편보다 지나치게 믿는다고, 뭔가 덜 믿는 사람이 핍박하고 간섭하는 것, 그때는 몰라서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 내가 종교중독으로 빠진 거죠. 남편은 매일 나에게 '당신은 목사님 말만 잘 듣고 내 말은 안 듣는다'는 거야, 얼마나 그 주제가 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도 칼을 든 거였어요.*

> (연구 참여자 F)
> *시댁 모든 식구들 앞에서 남편한테 뺨을 맞고 폭력을 당했을 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성령을 거역한 죄 같아 힘들어요. 내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가정폭력 속에서 사는 나의 모습은 너무 괴리가 있어 뭔가 싫어요. 현실과 연결이 안 돼요. 내가 다중인격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건지, 현실의 모습은 너무 답답해요.*

> (연구 참여자 B)
>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교회는 감사하고 따뜻하고 참 좋은 곳이고 살 만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고, 권력이 무섭고 앞뒤 말과 행동이 다르고 더 명예욕과 권력 욕심이 큰 집단이구나! 무섭구나! 참믿음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 (연구 참여자 A)
> *기독교인이니까, 목사님은 참고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숨이 막혔어요. 교회에서 남편을 혼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여자가 참아야 돼? 이거는 꽉 막혀서 기독교에 대해 무언가~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을 따라가는 기독교? 유교를 따라가는 기독교? 아 여기서 적용되는 거야? 숨 막히지, 재미없고, 화가 나고 그랬어요.*

(2) 긍정적인 면

앞서 진술한 신학적 해석의 부정적 측면을 포함하는 교회 내의 지배적인 담론에도 불구하고 비록 부수적인 이야기일지라도 그것들의 빛나는 순간들이 연결되어 긍정적인 대안적 이야기들도 발견되었다. 참여자 C는 벼랑 끝에서 오뚝이처럼 세워주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자신의 경험을 깊이 숙고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다. 참여자 D는 의존했던 남편이나 부모 대상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진정한 성인으로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떠남을 경험해야 한다. 참여자 D는 인간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성장하여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임을 통찰하게 되었다. 참여자 B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되어 더 공감할 수 있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지각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안목이 생긴 것과 하나님께 축복과 심판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억울함을 내려놓게 되었다. 참여자 B는 상담을 통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재해석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신학적 해석은 나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지평의 융합을 끌어내게 되었다. 이것이 가정폭력 피해자로 명명하지 않고 가정폭력 피해경험으로 명명한 이유이며 폭력 중단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가시화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 (연구 참여자 C)
> *벼랑 끝에서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원망보다는 힘들 때마다 달려가서 기도하고 울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를 오뚝이처럼 세워주셨어요. 내가 오로지 붙들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
> (연구 참여자 D)
> *그전에는 남편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고, 부모가 나를 지켜줄 줄 알았고 의존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잘했고 내가 한 만큼 기대했지만 이젠 내가 느끼는 것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남편을 믿고 부모를 믿고, 자식을 믿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데 알고 나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
> (연구 참여자 B)
> *저 또한 가정폭력을 겪는 사람을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를 볼 때 왜 저러고 살까?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당사자가 되니까 선입견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집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그걸 쉬쉬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도와줘야 할 일이고 해결해 줘야 하는 거고, 오히려 더 쉬쉬하면 더 곪아 터지는 것 같*

아요. 그게 그 사람 단편적인 부분만 아니라 그 사람 전 인생에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도와주면 좀 더 빨리 해소가 되고 치료가 될 것 같은데 다 쉬쉬하고 자존심 때문에 더 큰 일이 발생하는 것 같고, 제가 사고가 더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했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살날도 많은데 하나님이 축복도 주실 것이고 다 아실 것 같아요. 비록 세상 법은 속 시원하지 못하고 더 목 메이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심판하실 것 같아요. 그나마 덜 억울한것 같아요. 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결코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 게 맞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이유가 있어서 주셨겠구나! 가난, 장애인 이런 것에 대한 억울함이 많아요. 우리 엄마를 대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경험을 준 건 나에게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본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고백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가족 안에서 남용되는 힘의 형태들은 매우 다양하고도 구체적이었지만 한국 사회가 가진 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족에 대해 현실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폴링은 힘의 남용과 폭력이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서 조직화되어 있음을 이야기한다.[71]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경험 여성들은 교회 내 에서조차 침묵을 강요당하며 가해자를 용서해야 하는 공모적인 순응을 요구받고 있었으며, 그 힘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인식하기까지 목회적 돌봄을 받고 있지도 못했다. 참여자들이 보여준 고통의 일부를 통해 폭력적 힘이 교회 내에서도 조직화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71] Poling, *The Abuse of Power 성폭력과 힘의 악용*, 87.

Chapter III
가정폭력 피해 경험 여성에 대한 여성신학적 관점
(Feminist Theological Perspective on Women Who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나는 여성 신학(feminist theology)적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 여성 신학은 기독교의 전통이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왔음을 인식하며, 교회가 가부장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사용해 왔음에 대해 주목한다. 따라서 여성 신학은 교회의 남성 중심적으로 내재된 신학에 대해 비판하고, 기독교의 가치들을 여성의 관점에서 조명하며 재형성하는 가운데 여성 해방을 위한 추동이 되고자 한다.

강남순은 '여성 신학'이라는 용어가 여성 중심적 신학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담고 있으며, '페미니스트'라는 분명한 정치적인 입장이 드러나지 않는 결정적인 한계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페미니스트'를 '여성'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대로 '페미니스트 신학'로 쓰는 것이 혼란을 줄여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여성 신학적 관점'이라는 용어에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입장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고 여겨져 그냥 '여성신학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여성 신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간의 '진정성 회복'이다. '진정성(authenticity)'이란 한 사람이 자신을 자유로운 존재로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72]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성을 향한 본래적인 갈망이 페미니즘을 탄생하게 했고, 억압과 소외의 현실을 극복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해방적 담론이어야 한다.[73]

여성 신학은 이론과 운동으로 페미니즘과 지속적으로 관계하는 가운데 전개되어 왔다. 초기 여성 신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첫 단계에서 공유했던 이론적인 전제는 모더니즘의 전제로 근대 이론적 전제를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인간이 고정적이고 본질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관된 주체, 불변의 자아가 있다고 봄으로써 여성 신학에서는 여성들의 경험에 보편성과 공통된 특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주체와 세계의 본질적 구조의 파악

---

[72]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29.

[73] 강남순, 30-31.

이 가능한 이성의 형태가 있다고 간주하였기에 여성의 경험이 경험의 이론적 구성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규범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셋째, 근대는 역사와 문화를 언어가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다고 믿었다. 역사 해석의 명확한 핵심이 있다고 보았던 근대 이론은 여성 신학자들에게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해석에서 여성 신학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넷째, 여성 신학적 의도가 하나님의 계시된 의도와 일치한다고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의 토대에는 신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 토대 주의는 여성 신학 뿐만 아니라 근대 신학의 모든 형태에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 이론에서는 절대 객관적 관점이 없음을 주장하며 이런 중앙 집중적인 전체화 경향성을 비판한다.[74]

나아가 여성 신학자들은 여성의 경험을 신학의 범주로 삼아 다른 신학자들과의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기독교 전통 안에서 해방적인 원리를 그 신학적 근거로 삼는 점에서도 다르다. 1기 페미니즘 시기인 19세기에는 자유주의 사상 아래 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존재로서의 여성이었다. 따라서 우선시되는 목표는 남성과 동등한 기회와 법적 평등성의 보장이었다. 여성성이나 남성성보다는 공통으로 지니는 인간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조금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성별을 초월하려는 관점으로써 여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된 인간 이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기 페미니즘의 시작인 1960년대의 여성은 1기의 무성별적인 여성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관점에서 젠더에 초점을 두고 여성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시작했다. 이러한 젠더 개념은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게 했다.[75]

최근 페미니스트 신학에서는 '신의 형상으로서의 여성'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성 신학자들의 관점은 다양하지만, 남성들이 규정한 범주 아래 여성의 삶과 경험은 주변부로 간주하여 왔다는 관점은 비슷했다. 이러한 전제 아래 여성 신학적인 관점에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여성들의 경험이라도 그 안에는 보편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

---

[74]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46.
[75] 강남순, 49.

서 여성 신학자들은 경험의 보편성에 대한 공통점을 여성의 본성으로 보기도 하였고, 여성 억압의 역사적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였으며, 억압에 대항하여 여성의 현실 경험에서 발달하여 온 곳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여성 신학자들의 여성 경험의 보편성에 대한 주장은 이처럼 여성의 경험을 신학에서의 규범적 범주로 접근하게 한다.[76]

여성 신학은 성서의 어떤 부분들은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제적인 관점에서 그 시대의 담론을 배제할 수 없는 성차별적인 부분이 있음에 대해 그 차별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성서와 신앙의 동의가 먼저가 아니라 여성 차별적인 의혹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야 함에 동의한다. 내가 여성신학적 관점으로 만난 인터뷰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가부장제의 거대한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지금 여기에서의 현실로 체험하게 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경험이 갖는 주관적이고 해석적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피해여성들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경험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확인하고,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그 이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목회적 돌봄은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를 담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때 그 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면담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적 범주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피해경험 여성들과의 면담을 통해 밝혀진 주제는 다음의 4가지로 "남편의 다양한 폭력 행사," "아내의 피해 양상," "남편의 다른 가족들과 외적 영향," "가정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신학적 해석"으로 분류되었다.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의 가정 안에서는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에게 힘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의 어려움은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가정에서 그 힘이 관계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힘의 과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마도 갈등을 유지한 채로 불안하게 살기보다는 거짓된 안정이라도 찾기 위해 다른 가족 구성원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통제를 위한 개인의 힘의 악용은 악이며, 사회적 침묵도 악임을 제임스 폴링은 주장한다. 또한 그러한 힘의 악용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해를 입히며, 상호성과 상호의존성의 가능성을

[76]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52.

질식하게 한다.[77]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피해 여성들의 폭력에 대한 경험은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반응에 대한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나는 여성 신학적 관점이 보여주는 억압과 차별적인 구조에 대한 예민성을 가지고 프로젝트 결과에서 밝혀진 바를 토대로 하여 선행 연구와 함께 논의를 전개하였다.

A. 다양한 폭력 형태로 드러나는 힘의 악용

사회적 힘의 불공평은 힘을 악용할 기회가 되며, 힘의 악용은 한 사회가 가진 제도와 이념에 달려 있다.[78] 그 사회의 지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이념적인 제도는 가족인데, 가족 이데올로기야말로 힘을 악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손쉬운 통제와 지배 구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가부장제 역시 이념과 제도에 의해 남녀 사이의 힘의 악용을 구현해 내는 지배의 또 다른 구조이다. 리타 브룩도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들은 본인이 남성보다 아래에 있음을 발견하며, 힘에 관한한 여성과 남성이 두 세계로 이분화되어 지배와 복종 안에서 삶을 구성해간다고 보았다.[79] 힘을 악용하는 한쪽이 있으면, 그 지배 아래 있는 다른 한쪽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불공평한 힘의 구조가 설정되면 신체적 공격이나 어떤 불공평함에도 자신을 보호하거나 도피조차 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설사 가정폭력에 맞서기로 결심하더라도 피해경험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신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자신과 자녀의 경제적 필요에 대해 당장 고민해야 하고, 심지어 법적인 대응을 시작해야만 그 절차가 시행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개입된다. 그러나 가해자라 하더라도 남성의 경우는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나 사회로부터 지지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내가 면담한 피해경험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남성들이 폭력을 행한 이후 겪게 되는 상황과 달랐다. 가부장제적인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은 자존감에 매우 깊은 손상을 입었으며, 심한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는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들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교회 역

[77] Poling, *The Abuse of Power 성폭력과 힘의 악용*, 45.
[78] Poling, 41.
[79] Poling, 42.

시 가부장제라는 사회적 담론에서 함께 나란히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폭력의 문제를 다루지 못해 온 것이 현실이다. 기독교인의 가정폭력은 증상으로 드러나지 못해 왔다. 김광일의 선행연구에서는 기독교 가정이라 해도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80] 나의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모들처럼 이필승의 연구에서도 목회자의 아내 중 71%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바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81] 나아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가부장제적인 말씀으로 오히려 다시 한번 인식의 폭력, 영적인 폭력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여성들은 결혼을 함과 동시에 결혼이 사랑하는 한 사람과의 만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가족 안에 존재하는 가부장제적인 생활을 통해 가부장적 제도를 현실적 환경으로 마주하게 된다. 나아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여성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역할들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매우 복잡해진다.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관습적, 문화적인 틀 속에서 낯선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82]

강남순은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과 남성의 세계를 이분화하여 서로 다른 언어와 세상을 창출하며 살아가게 한다고 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불평등한 한국사회의 구조는 여성과 남성의 언어와 문화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멀어진 거리는 서로의 한계를 낳게 된다. 그런데 가부장제적인 가족에 대한 이해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존재함이 프로젝트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유교화된 기독교적 가족 담론이 지배적으로 강남순은 유교와 보수적인 기독교가 만나 더욱더 보수적으로 되었음을 지적한다.[83]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가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예수는 오히려 가정을 이루지 않은 비혼 독신 남성으로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 또한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지, 부계 혈통을 강조하지 않으셨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생각하는 가정과 유교가 생각하는 가정의 공통점인 부계 혈통 중심의 가부장

---

[80] 김광일,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서울: 탐구당, 1987), 36.
[81] 최무열, *기독교인의 가정폭력, 이대로는 안된다* (서울: 새 가정, 2005), 15.
[82]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11.
[83] 강남순, 111.

제는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84]

물론 신약성서에서도 바울서신에서 나타나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적인 요소들과 예수의 가족적인 가치들과 반대되는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다. 나아가 구약성서에서는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일부다처제와 같은 가족 형태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성서 안에서 어떤 가족이 기독교적인 가족인가를 증명해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21세기의 현실에서 양성인 부모와 자녀가 살아가는 가족 형태는 매우 감소하였다. 최근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가족의 변화 역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가족의 형태가 더는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를 새롭게 해석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는 가부장제적인 가치와 문화만을 지향하는 과거의 가족 형태와 신념, 가족에 대한 기대를 가장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폴링은 미국 사회에서도 가족이라는 신화 체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이미지가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부장제는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고 존중받는 건강한 가정 모델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한다.[85]

가족이 우선시되는 가치를 지향하는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더욱 여성이 남성에게 속하게 되는 구조이며, 개인보다는 집단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으로 나타난다. 가족의 구조 역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시댁과 처가의 관계가 매우 수직적이어서 힘의 남용이 보편화하기 쉬운 구조이다.[86] 이러한 구조 안에서 보편화한 가치의 확산은 사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한국 사회의 '갑질'이라는 용어까지 탄생하게 되었다. 한 사회에 지배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의 힘이 사람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유를 확장하는데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뜻임을 이해해야 한다.[87] 제도와 이념으로 조직화한 힘의 악용은 삶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많은 에너지가 결국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제도와 이념으로 한 사회의 그림자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한국 가족의 구조와 규칙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표면적으로 그 양상이 바뀌어

---

[84]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298.
[85] Poling, *The Abuse of Power 성폭력과 힘의 악용*, 201.
[86] 강남순, 300.
[87] 강남순, 44.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 깊은 가부장제적인 사회 문화적 가치는 여전히 가정폭력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1997년 가정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 보호 제도가 강화되었지만, 가정폭력 발생률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88] 이는 여전히 혈연적 수직 구조의 특징을 가진 남성 중심적 사고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면담 결과 드러난 피해경험 여성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분노 표출과 화풀이 대상이자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이었고, 협박과 통제를 경험하였다. 또한 안타깝게도 여성 스스로가 가부장제 권력 구조를 내면화하여 남성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아이들을 생각해 참기만 하느라 결혼 생활을 암울하게 느끼고 있었다. 가부장적인 권력 구조 안에서 남편도 시댁 식구도 다 무서웠고, 유교를 따라가는 기독교 가정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남성 중심적인 통제가 여전히 존재하여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남편을 경험하고, 남편의 평가가 곧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남편은 여성인 아내를 자기 틀 안에 가두고 조정하려 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을 통해 여성들은 힘의 구조 아래 편 가르기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힘이 없는 사람으로 폄하하며 얕잡아 보거나 시댁에서 맞아도 싼 존재로 대우받는 동안 자기 편은 없었으며, 뒤통수를 맞는 경험을 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피해경험 여성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고 목사 직분을 가진 남편만 사랑한다는 좌절의 경험을 내면화하여 이분법적인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었다.

강남순은 이러한 여성의 경험을 논하며 혈연적 수직 구조의 관계적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가부장제적인 가족에 대한 이해는 첫째, 수평적 평등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한다. 둘째, 개개인 개체의 판단을 존중하는 민주 의식을 차단한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차별을 강화한다. 따라서 진정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가족 구조라는 것이다.[89] 수직 구조적인 관계 내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이해는 결국 그 한쪽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

[88] 이상서, "[디지털스토리] '칼로 물 베기 아닙니다' … 여전한 부부폭력, 대책은," *연합뉴스*, July 8, 2018, https://www.yna.co.kr/view/AKR20180706115100797. 2017년 경찰청의 가정폭력 발생건수 발표에 의하면 2013년 16,785건에서 2016년 45,619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상담전화의 상담건수는 집계를 처음 시작한 2007년 4만 9천건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18만건을 넘겼다.

[89]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301.

올 수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을 온전한 인격체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은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까지 확장해 나가며 진행된다. 그런데 타인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 효과적으로 돌보고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수직적인 과정에 머무르게 된다면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의 언어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목회적 돌봄 역시 돌봄을 받는 수동적인 수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반자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사적인 영역인 것처럼 보이기 쉽지만 다양한 차원의 힘의 권력 구조가 그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어떻게 수용되고, 제도화되어 갈 것인가는 사회의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주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리처드 겔 레스(Richard Gelles)와 머리 슈트라우스(Murray Straus)에 따르면 폭력을 개인 간의 갈등으로 보거나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합법적인 형태로 봄으로써 폭력을 문화적으로 조장하며 가정을 사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성스러운 곳이라고 낭만화하면 폭력을 선택한 남자들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 여성과 힘없는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게 하고 폭력은 계속 남는다고 하였다.[90] 이는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의 면담을 통한 진술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 여성들의 시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단지 철학적인 사상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 돌봄을 실천하는데 매우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B. 피해 양상을 통해 드러난 내면화된 가치

그동안 페미니즘의 시각은 역사적으로 가부장제 권력이 여성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여성을 억압해 왔으며, 권력을 가진 남성이 어떤 방식으로 여성을 억압하며 권력을 유지, 강화해 왔는지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런데 이러한 초점에는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성립되어 정작 여성인 본인이 어떻게 그 가부장제의 유지에 공모해 왔는가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다. 이러한 맥락은 억압의 구조를 근원적으로 해체하는데 실천적 전략을 구상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91] 따라서 여성들이 억압의 구조를 당연시하게 되는 내면화의 과정과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어떤 과정 안에서 그러한 가치들이

[90] Poling, *The Abuse of Power 성폭력과 힘의 악용*, 197.
[91]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340.

내면화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조는 흑백논리로 빠지게 되어 한쪽이 흑이고 한쪽이 백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쪽은 옳고 다른 쪽은 틀린 것이 되어버려 대화의 불가능성을 가져오게 된다.

교회에서 텍스트로 쓰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에서 열왕기서에 걸친 가족 이야기는 철저히 위계적이고 가부장 중심적으로 육체 혐오와 여성 혐오의 전통이 지속되는 결과를 낳았다.[92] 바울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므로 "아내는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엡5:23) 함을 강조하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고전11:7)이라며 부부관계와 남자 여자의 관계 설정을 매우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치를 재생산하여 기독교 안에서 다양한 양태의 성차별과 가부장제를 정당화하여 마치 '신적인 창조질서'를 따르는 것으로 해석되고 실천되고 있다.[93]

교회에서 선포되는 전통적인 설교 들은 성서의 이름으로 권위는 남자에게 종속되었고 남자를 위한 여자의 희생은 당연시되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여자는 비성서적이며 남자보다 위에 서려는 여자는 신실하지 못한 여자로 치부되었다.[94] 강남순은 한국 교회가 여성의 상황에 대해 가부장제에 순응하면 좋은 여성, 좋은 기독교인이라는 보상을 주고, 순응하지 않는 여성을 범주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킴으로 가부장제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95] 여성들 또한 가부장제화한 종교적 가치를 통해 그 구조에 순응하는 것이 '신적 질서'를 따르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재생산함으로써 가부장제의 공모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도 하였다.[96]

참여자 B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던 담임목사 사모는 여성 속의 가부장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아 가부장제적 가치를 내면화하게 되어 자신은 물론 다른 여성의 해방과 자유를 막는 억압적 기제의 지지자가 되어 교회 내 성차별주의적 구조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가부장제 공모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가부장제 구조는

---

[92]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89-90.

[93]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142.

[94] 김호경, *여자, 성서밖으로 나오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111.

[95]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341.

[96] 강남순, 343.

남성들의 억압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협조와 '공모'가 있을 때 작동되고 유지된다.[97]

한국 사회는 결혼 후에도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아 때로는 서구의 여성들보다 더 독립된 삶이 보장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남성들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성들이 결혼 후에도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성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들의 주체적인 삶을 존중 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것은 주체적인 여성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계 혈통 중심적 가족주의 문화에서는 남편의 집안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 정식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을 따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98] 이러한 배타적인 의식은 한국 사회에 남아선호 사상을 더 굳건하게 했고, 여성들은 그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의 피가 섞인 아들이 필요했다. 한국 사회는 아버지의 피가 섞인 자녀들이 있는 가정만이 정상 가족이라 여겨졌기에 여전히 입양이 가족의 비밀처럼 전수되어 가고 있기도 하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스스로 부계 혈통 중심의 성차별적 가치를 내면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미 투(Me Too) 운동과 더불어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었다. 여성 혐오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여성을 '위험한 존재' 이면서 동시에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강남순은 여성을 성적 도구로 바라보게 되면 언제나 남성을 유혹하는 위험한 존재가 되고, 그러한 이해는 강간이나 성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인 여성을 먼저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도자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요한 자리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여성 혐오의 다른 얼굴임을 지적한다.[99] 여성을 이상화하거나 혐오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뿌리가 모두 가부장제적인 남성중심주의로부터 온 것으로 그 의미는 동일하다.[100]

여성은 물론 남성 역시 다양한 방식의 남성 중심적인 성차별적 가치를 내면화한다면 결국 종류는 다를지라도 모두 피해자가 되어버린다.[101] 무엇보다 여성들은 자기 스스로 가부장

---

[97]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390–92.
[98] 강남순, *정의를 위하여* (서울: 동녘, 2017), 76.
[99] 강남순, 94.
[100] 강남순, 94.
[101] 강남순, 94.

제 가치를 내면화하고, 재생산하는데 공모함으로 결국 자신의 해방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이러한 차별과 배제, 억압은 한 사회의 다양한 정의가 실현되는데 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경험에서 발견되는 억압은 단지 다른 성의 일방에 대한 인권 침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가운데 가해자를 이해해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감으로 피해자들은 배제당하고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병들게 된다.

면담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경험으로부터 드러난 어려움은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자신의 잘못으로 가져가야 했으며, 시댁의 억압으로 자신을 초라하게 느꼈고,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설 자리도 없었고, 존재하지만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며 그림자가 되어 살아야 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배우자의 평가가 곧 자신이 되는 상황에 순응해서 살아야 했음을 고백하였다. 따라서 자신을 부정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과 일치시킬 수 있었다. 경찰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억압당했으며, 무형으로 살아야 했다고 하였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자유가 없이 통제당하며 나 자신이 없는 느낌으로 살아온 경험들은 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도록 스스로 억압하거나 나는 틀리고 그들은 맞다고 생각하며 전부 자신의 잘못으로 귀인하여 내면화하였다. 공지영의 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 나오는 영선 역시 결혼 8년 동안 실한 하녀였음을 고백하는 대목이 나온다. 남편이 "학비가 없으면 학비가 되고, 배가 고프면 밥상이 되고, 커피랑 재떨이가 되고, 아이들의 젖이 되고, 빨래가 되고"[102]라는 이야기와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이 말하는 "어릴 때는 아버지의 소속물로, 결혼해서는 남편의 종, 비서처럼 살아가고 있음"과 매우 유사하게 지금 여기에서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창피해서 친정이나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은폐시킨 경험들은 현실을 부정하게 하고 회피하게 하였다.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 봐 더 불안해졌고 공포스러웠으며, 점점 더 암울하고 마음이 병들어갔다. 쓸쓸하고 외로웠고, 하늘이 노랗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던 피해경험 여성들은 거의 죽음과 같은 삶에서 정신 분열까지 경험하기도 하였다.

---

[102] 공지영,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서울: 해냄, 2018), 152.

그런데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는 가정 내에서 가해자들 역시 그러한 폭력이 자행되는 환경에 노출된 맥락이 발견되었다. 남편의 원가족에서 아버지가 폭력이 심해 어려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거나 자녀들에게 세대 전수가 되어 아이들 안에 분노가 심해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반복성이 드러났다. 부모 세대 내에서도 자행되는 폭력을 목격하며, 피해경험 여성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신이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는 폭력으로 인한 현실을 통해 왜곡된 해석들에 순응적인 태도를 내면화해 갈 수밖에 없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경험들은 폭력에 대한 인식보다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는 것으로 왜곡되어 인식하기도 하였으며, 이혼하지 않기만을 기도하였고, 기도하면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나는 이러한 피해경험 여성들의 현실로부터 들려오는 외침에서 그들의 자발적이고, 공모 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억압의 문제를 고민하게 하였다. 피해경험 여성들은 억압적 상황을 인식하지도 못할 뿐 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여 지배 구조의 재생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존 브래드쇼(John Bradshaw)는 가부장적 구조의 폭력가정 안에서 맹목적 순종에 대항하여 이혼율과 가출 자녀들이 많은 것은 학대 가정 안에서 살기를 거절하는 그들의 용기와 개별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성숙한 민주주의가 나타나는 증거라고 하였다.[103] 자신의 내면의 감정, 필요, 욕구, 생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체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부모, 자녀, 형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104]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특히 기독교인인 피해경험 여성의 경우는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 윤리는 온순과 겸손, 복종과 자기희생, 자기를 죽이는 사랑 등을 내세워 여자다운 태도를 내면화하고 강화하여 자발적인 복종의 삶을 살며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남편과 자녀를 통한 대리적 삶을 살도록 훈육한다.[105] 교회는 누구든지 생명의 존귀함을 누리며 무조건적인 포용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

---

[103] John Bradshaw, *The Family 가족*, trans. 오제은 (서울: 학지사, 2006), 20-21.

[104] Bradshaw, 20-21.

[105] Elisabeth Schussler Fiorenza, *Discipleship of Equals: A Critical Feminist 동등자 제자직: 비판적 여성론의 해방교회론,* trans. 김상분 and 황종렬 (왜관: 분도출판사, 1997), 74-75.

들에게 다시 한번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포용해 주는 피난처가 되기보다 더 강화된 폭력을 경험하는 곳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정부 주도하에 가정폭력은 더 이상 사적인 집안일이 아니고 4대 악(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정책이 발표되었고 엄연한 범죄라고 법으로 제정하고 있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교회 내에서 기독교인의 가정폭력은 주목받지 못했다.

나는 임상 현장에서 목회자 가정을 포함한 기독교 가정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을 빈번하게 만나는 가운데 교회 내에서 기독교의 덕목인 사랑과 용서, 화해 등과 같은 가치들이 주로 힘이 없는 약자들에게 강요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이 남편의 구타를 못 견디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상담하러 갔을 때 성경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으니,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106] 교회나 가정에서 남성들에게는 용서와 희생이라는 덕목이 그리 강조되지 않지만 왜 여성들에게만 유독 이러한 덕목들이 강요되고 있는가? 여성들에게만 주로 강조되는 자기희생이나 용서는 기독교의 가치들을 가부장제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강남순은 자신을 억압하면서까지 자신의 용서를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것은 덕이 아니라 약자의 삶을 왜곡시키는 권력의 문제를 방치하는 덫에 지나지 않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가부장제의 윤리들은 순종, 자기희생, 용서와 같은 기독교적인 덕목들을 만나면서 여성들을 억압하고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107] 특히 순종이라는 이데올로기는 한국 사회의 여성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강력한 가치가 되면서 가부장제적인 이데올로기로 왜곡되어 순응처럼 강화되기도 하였다. 한국 교회에서는 순종의 대상과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며 실천해 나가기보다는 더 큰 권력을 가진 외적 권위에 대한 절대 순종의 의미로 재현되었다.[108] 현실적으로 교회 내에서 교회의 기독교적 덕목 가운데 순종과 봉사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진취적이고 개방된 것보다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가치를 요구하

---

[106] 강남순, "뜻으로 본 성서: 용서의 일상화-덫인가 덕인가," *갈라진 시대의 기쁜 소식* vol. 699 (September 2005): 9.

[107]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346.

[108] 강남순, 346.

며 특정한 가치에 대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을 남자 아래 두기 위한 것으로 여성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는 폭력의 기제이다. 교회 역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경험한 억압과 종속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처럼 권력 구조가 재생산되는 구조를 합리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힘의 위계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것은 지도자를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상호 의존적으로 될 뿐 덕스러운 성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향하여 온정을 나누는 성숙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겠다.[109]

C. 강요와 통념에 대한 신학적 해석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차이를 드러내는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사회제도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목소리가 가능하기에 폭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담은 규정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폭력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폭력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이다.[110] 같은 이유로 가정폭력의 증가에 대한 통계자료는 IMF 관련 경제적 위기로 인한 어려움이나 성에 대한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의 갈등 증가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미 존재하던 개인에 대한 침범적인 폭력적 행위들이 과거에는 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집안일로 치부되었다가 이제는 새로운 범주와 가치 기준에 의해 폭력으로 규정되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과거 한국 사회는 군사 독재 문화가 지배했던 흔적이 남아있어 폭력의 행사가 일상화된 사회였다. 한 사회의 '문화'라는 것은 대부분 남성에 의해 규정되고 통제되는 문화였다.[111] 폭력이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폭력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져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방법적인 면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많았다. 학교나 가정에서조차도 아이들을 훈육한다는 명목 아래 신체적 폭력은 필요악으로써 그 수단을 인정받았다.[112] 폭력의 일상화는 폭력이 본래부터 있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113]

[109] Bradshaw, *The Family 가족*, 19.

[110]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251.

[111] 조용환, "성차별주의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32 (December 1993): 140.

[112] Alice Miller, *사랑의 매는 없다*, trans. 신홍민 (서울: 양철북, 2007), 22.

대부분의 사회에서 성에 따른 차별적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화의 힘이 크면 클수록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무감각해지고 그 과정이나 결과를 당연히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114]

피해 여성들은 며느리의 역할을 강요받았는데, 친정에는 가지 못하게 하면서 시댁 위주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았으며, 본인이 아픈 상황에서도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간병인이 된 느낌이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살았고, 남편과 다투고 나면 시댁에 가서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야 했다. 시댁에는 알아서 잘했지만, 한없이 잘하기만 해야 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같은 맥락에서 사모는 사모로서 옷차림, 화장 등 스타일까지 눈치를 봐야 했고, 목사가 힘이 들기 때문에 사모는 무조건 맞추면서 살도록 강요되고, 아내로서 평등한 관계가 아닌 사모라는 역할로서 수직적인 관계로 순종과 굴종을 요구받았다. 사회적으로 이혼은 인생 실패라는 통념에 젖어 친정 식구들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아 이야기도 하지 못했고, 신앙적으로도 이혼은 생각 못 하고 애들 때문에라도 참고만 살아야 한다고 자신을 타일렀다.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내에서 여성에 대한 성 역할 기대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115] 사회문화적으로 부과된 성 역할이 마치 '자연적'이고 '선천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하다.[116] 여성적인 사람, 남성적인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은 '주어진 것(born)'이 아니라 '만들어 진(made)'이라는 의미로 '젠더'라는 개념이다.[117] 고정된 성 역할의 통념은 여성을 '이상화'하여 교회와 가정, 사회의 '꽃'으로 불린다. 이것은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역할로 덫을 씌어 남성의 보조자로 순종과 희생의 삶을 요구하며 인격체가 아닌 타자화시킨다.[118] 아내 학대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다. 가정적 수준에서나 사회적 수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힘과 지위를 가질 때 아내 폭력

---

[113]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257.

[114] 조용환, *성차별주의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140.

[115] 여성가족부 2010-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가 강할수록 폭력 가해율과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116] 강남순, *젠더와 종교*, 17-18.

[117] 강남순, 17-18.

[118] 강남순, 19.

이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119] 또한 남성이 경제력을 통제하고 가정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여성의 이혼이 자유롭지 않고 제한되는 사회에서 아내 폭력이 더 잦다는 것이다.[120] 그래서 가정폭력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Gender- based violence)'[121]이며 가족관계의 표현이자 성 역할의 연장선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122]

한국 사회는 사적 영역인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적인 영역에서 공동체의 조화가 우선시되는 문화이다. 특히 가족이라는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는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화에서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이 느끼는 분노의 감정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으로 치부되어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분노 자체는 중성 상태로서 건설적으로 표현되거나 파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자연적인 반응으로 인간관계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다.[123]

강남순 역시 모든 분노를 하나로 묶어서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124] 다양한 분노를 본능적 분노, 성찰적 분노, 파괴적 분노로 나누었는데, 첫째로 본능적 분노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나타나는 것으로 자신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자동적인 반응으로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성찰이 개입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로 성찰적 분노는 어떤 사건에서 부당함을 경험한 경우 그것을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라 윤리적인 판단이 반영되는 분노이다. 즉, 본능적 분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분노가 정당한지 그 근거에 대해 성찰한 후 느끼는 분노이다.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은 윤리적 판단을 적용한 성찰적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파괴적 분

---

[119] 권영상 et al., *가정폭력 전문상담*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26.

[120] 권영상, 26.

[121] 고미경, "젠더기반 폭력 방지 정책의 이해," 47. UN 여성폭력철폐선언(UN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은 1993년 UN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으로, 국제문서상 처음으로 젠더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제1조.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인 피해나 고통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젠더기반(Gender-Based)폭력을 뜻한다. 이는 공적 또는 사적 생활에서의 협박, 강압, 또는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등을 포함한다.

[122] 양현아, "가정폭력에 관한 비판적 성찰: 젠더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지* vol. 20, no. 1 (January 2006): 24.

[123] Cosgrove, *Counseling for Anger 분노와 적대감*, 49-50.

[124] 강남순, *정의를 위하여*, 84.

노가 있는데, 이 분노는 본능적 분노나 성찰적 분노가 지나치게 될 때 증오나 복수심으로 전이된 것으로 반윤리적 분노라고 한다.[125]

피해경험 여성들은 이런 파괴적 분노와 성찰적 분노가 혼재하고 있었다. 단지 분노가 그 행위자를 향하고 있으면서 가해자인 남편의 존재 자체마저 부인하고 증오하는 분노는 파괴적 분노이다. 다른 피해경험 여성들은 분노 표출조차 하지 못하고 자신의 수치심과 비참함으로 부정적인 사고가 증가함이 드러났다.

따라서 혼자서는 파괴적 분노를 표출하여 행위자를 비난하고 악마화하기 쉽다. 피해경험 여성들이 겪은 폭력에 대해 파괴적 분노가 아닌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성찰적 분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연대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연대하는 이들이 함께하며 파괴적 분노가 아닌 성찰적 분노를 배워갈 필요가 있다.

강남순은 이러한 성찰적 분노가 주는 이득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개인 차원에서의 이득으로 폭력적 상황으로부터 피해경험 여성들을 보호하고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게 한다고 한다. 자신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신을 지켜내는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다. 공적인 차원에서의 이득으로는 성찰적 분노에 근거한 문제 제기와 항의 등으로 폭력 행위자들의 행동 개선과 처벌을 요구함으로 정의가 실현되도록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성찰적 분노는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유사한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보호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성찰적 분노는 본능적 분노처럼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노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성찰하고 배워야만 가능하다.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모두가 침범당하는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은 가족과 교회 모두를 정의롭게 경험하지 못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와 폭력이 없는 이상적인 세계 사이의 간격에는 거리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이 인식하는 그 거리는 현실 세계에 여전히 힘의 남용과 불평등으로 인한 가치의 내면화, 강요와 통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피해경험 여성들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자신은 싫어하고 목사 직분을 가진 사람만 사랑한다고 느꼈으며, 폭력을 당할 당시에는 하

[125] 강남순, *정의를 위하여*, 85.

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여겨졌지만, 담임목사가 사랑으로 끊임없이 용서하며 참고 살라고만 하셔서 숨 막히고, 재미없고, 화가 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고통이 자신에게 온 것에 대한 해석을 시도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내재된 신학(Embedded Theology)'을 작동시키게 된다. 목회자는 피해경험자 자신이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에 대해 들으며 그 안에 '내재된 신학(Embedded Theology)'을 관찰해야 한다.[126] 본인이 가진 세계관과는 일치하지만, 전통적인 신학과 어긋나는 불일치는 결국 내담자의 어려움과 역기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K. 사무엘 리 역시 장애와 목회 상담에서 목회 상담자가 단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자동으로 극복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목회자는 자신의 언어를 비평하는 가운데 사회와 역사가 주입한 편견이 성서 해석과 관련한 언어 중에도 담겨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민감하게 깨닫고 대변자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교회가 성서의 해석을 한 쪽의 차별과 억압을 구속하는 도구로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127]

반면 이러한 부정적인 면담 결과 외에 신학적 해석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결국 인간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깨달았으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선입견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 힘든 경험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도 생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자유적인 신앙으로의 변화를 피해경험자 개인의 몫으로 맡기기 보다는 함께 머물며, 뿌리내리기 위해 목회자로서 현실적인 장벽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드러난 차별과 폭력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한다면 나는 이러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체제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책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직면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128] 우리 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다고 믿는다면 이는 공동체

---

[126] Doehring, *목회적 돌봄의 실제*, 201.

[127] K. Samuel Lee, "장애인 사역의 신학적 의의," in *장애와 목회상담*, ed. 이재서 (서울: 세계밀알, 2018), 237.

[128] Poling, *The Abuse of Power 성폭력과 힘의 악용*, 229–30.

안에 있는 불의가 노출되는 것이 겁나기 때문이다.[129] 따라서 폭력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를 지향하기보다 이전보다 덜 폭력적인 사회를 위한 걸음을 언제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130]

신학자 마티(Martin E. Marty)가 한 말 중 "전통은 죽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믿음이다. 반면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믿음이다"는 뜻을 생각해 본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부장제적 성차별에 근거하여 힘의 악용으로 만들어진 전통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방적이고 평등하며,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려면 비판적인 자세로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요와 통념은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에게 수단과 부속품의 삶, 타자의 삶, 가부장제의 희생자가 되면서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며 사는 것이 가정을 위한 것이고 성숙한 신앙이고 신의 질서라는 허위의식을 심어주며 가족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도록 만든다.

배우자가 함부로 대할 때 피해 여성들은 분노하게 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분노를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죄책감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교회는 참고, 참다가 분노하게 되는 사람들의 편에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을 부차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주변화된 여성의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과 고통이 사회적 환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탐구하며 개인의 삶이자 동시에 사회적 삶임을 인식해야 한다. 가부장제에서 남성이 아닌 모든 존재-여성, 어린이, 노인, 소수인종 등이 모두 피해자일 수 있기에, 이들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겪어온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해 새로운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다.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논하는 인간 경험은 여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약하고 소외되고 무시되어 왔던 것들을 향함을 말한다.

---

[129] Poling, *The Abuse of Power 성폭력과 힘의 악용*, 229.

[130]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270.

Chapter IV
논의 (Discussion)

나는 여성주의와 여성 신학적 관점의 다름을 인식하는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의 언어 속에 드러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특히 가정폭력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사적인 문제나 상처가 아니라 한 개인을 둘러싼 사회 전반의 문제와 구조에 대한 성찰이 함께 가야 한다. 이는 단지 교회 내에서의 개인적인 돌봄으로 다루어야 하는 신학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난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에 대한 돌봄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도, 신앙적으로도 안전지대가 되어야 하는 교회 내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피해자의 경험이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 아래 부정당하는 불평등을 경험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포용이 아닌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이해해야 하는 억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 통제나 방임과 더불어 배제와 같이 주변부로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폭력에 해당하는 침범이 공적인 영역까지 이어지며 2차 피해의 경험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트라우마 적인 경험은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목회 상담이나 목회적 돌봄은 공감과 경청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 사적인 영역에서의 온정주의로만 돌봄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실천 신학을 통한 실제적인 변화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나는 피해경험 여성들의 이야기로부터 그들이 간절히 원했으나 들려오지 않았던 목소리에 대해 교회 내의 실천적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 교회 내에서의 재경험에 대한 응답의 필요성

내가 면담한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 중에는 기독교 신앙이 있으면서 폭력을 경험한 후 교회에 상담한 경우와 상담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상담하였으나 원하는 도움이나 해결방법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이 도출되었다. 도리어 피해여성이 가해자를 이해하여야 했고 아내로서 복종과 순종, 희생을 강요받으며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영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상담하지 못한 경우는 첫째, 교회에 상담실이 있는지, 상담하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 한

다. 둘째로는 교회 공동체나 목회자에게 상담하면 교회에 소문이 나서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하였고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죄를 지어서 벌받는 것으로 판단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고 하였다. 셋째는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였고 죄지은 게 많아 벌받는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은 그동안 목회자로부터 설교나 성서 공부를 하며 내재된 신앙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은 교회에 상담을 해봐야 소문만 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 있는 가정으로 낙인찍힐 것을 두려워하여 목소리 없는 사람으로 비 존재적인 삶을 경험하면서 이미 그들에게 교회는 정의와 평등의 공동체가 아닌 차별과 불평등으로 일반 사회보다 더 낯선 곳이었다. 피해경험 여성들은 '다름의 공동체'(community of alterity)가 아닌 '동질성의 공동체'(community of sameness) 안에서 수용되지 못한 채 타자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131]

목회자는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목회자 자신이 듣지 못하여 입을 다물게 하는 구조는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양반과 상민, 남성과 여성 같은 유교적 신분 사회의 차별 구조 속에서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의 창조물로서 개체적 존재인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전달하며 여성들의 의식을 확장하고 해방적 역할을 하였다.[132]

그러나 점차 한국 사회에 제도화한 종교로 자리 잡으면서 해방의 요소들이 한국의 가부장적인 사회적 가치 구조와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은 교회의 모든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기독교의 지도력을 남성들이 독점하며 교회는 남성 중심적 성향을 강화하였다.[133] 그동안 힘을 가진 남성들에 의해, 목회자들에 의해 지배자의 관점으로 성서를 해석하고 말씀을 선포되다 보니 대다수의 여성들의 삶은 인간 자체로서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여성의 성 역할을 고정화하여 헌신과 순종을 강요받고 평등한 수평적 관계가 아닌 남성 중심적인 위계적 관계를

[131]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67.
[132]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144.
[133] 강남순, 146.

인간 이해로 수용하게 만든 것이 한국 기독교인 것이다.[134]

여성들이 자기의 피해 경험과 사회 구조적 모순과 갈등상황을 벗어나고자 교회를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는 여성들에게 치유와 안식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가부장적 문화 속에 있는 목회자들이 가부장적 문화 속의 편견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그 문화의 '기준들'에 반하거나 문화적 기준들을 부정하는 것일 경우 여성들의 이야기나 경험을 쉽게 믿지 못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절대화시킴으로써 여성들 스스로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현실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가부장적 편견 속의 목회자들은 그 여성들이 자기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나 자신의 언어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135]

이는 교회가 뿌리 깊은 가부장성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대부분은 여성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학습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여성의 경험에 둔감하게 되고, 비록 도와주고 싶어도 지식과 기술의 결핍으로 인해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도움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다.[136]

여성들을 상담하는 목회자들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씨름하여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과 그들 자신의 언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여성들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이 사회와 문화 속의 여성 차별과 억압의 문제에 그 깊은 뿌리가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일깨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더욱 풍요로운 삶의 선택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137] 목회자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서 속의 여성 불평등 구조를 비판할 수 있는 시각과 교회 안에 성차별구조의 불의를 인식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우정은 교회공동체는 권력들과 통치권들을 신성시하기를 그치고 교회의 책임적 역할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134]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146.

[135] Neuger, *Counseling Women 여성들을 위한 목회상담*, 107-08.

[136] 강연홍, "한국교회 내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을 위한 기독교상담에 대한 연구" (MA thesis, 호남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2003), 56.

[137] Neuger, 6-7.

> 교회란 성차별주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복된 소식이 설교 되는 곳이며, 가부장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복된 소식이 설교 되는 곳이며, 가부장제로부터 출애굽 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며, 서로 돕는 새 삶에 뛰어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 더불어 양육되는 곳이며, 그 공동체가 이러한 비전과 투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곳이다.[138]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미력하나마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이 말 못 하고 살았던 삶의 경험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면담을 통해 자신의 아픈 경험을 '자신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고,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피해 여성들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오랫동안 침묵 당하고 왜곡되어 잃어버린 경험과 말을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일은 너무나 낯설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자신만의 언어와 목소리로 자신의 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관계 안에서 잃어버린 삶을 찾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가부장적 편견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들 자신만의 목소리를 갖는다는 것은 여성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가장 잘 발견하고 지지하며 힘을 부여할 치료적 전략을 갖는 것이다. 꼭꼭 숨겨두었던 폭력에 대한 피해 경험을 드러내 말한다는 것은 자기 내면 깊숙이 들어 있는 욕구나 분노, 수치심, 죄책감 등의 감정도 함께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경험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함께 공감하며 나누는 과정은 매우 강력한 치료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목소리는 누가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 자신이나 타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누가 말하고 있고, 누구의 입장과 관점에서, 어떠한 사회문화적인 틀 속에서 이야기하는가와 같은 관계적 음향 상태에 따라 공명이 달라질 수 있기"[139] 때문이다.

이제는 여성들의 경험이 표현되어야 한다. 하나의 평범한 일반 여성 경험이 아닌 너무나 다른 다양한 삶의 정황에서 나온 '여성의 경험'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이런 여성의 경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해지는 여성의 피해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운동, 여성 해방적 운동, 목회 상담적 운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들의 경험을 있는

---

[138] 이우정, *여성들을 위한 신학*, 396.

[139] Carol Gilligan and Lyn Mikel Brown, *Meeting at the Crossroads: Women's Psychology and Girls' Development* (NY: Ballentine Books, 1992), 20–22, 41, quoted in 고영순, "여성의 목소리: 변조인가, 변주인가?" *목회와 상담* vol. 14 (May 2010): 66.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사적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의 확장이 요구된다.

이런 교회적 변화의 최일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가 목회자이다. 교회 내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적 전통들을 해체하는 것과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는다.[140]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개체적 존재로서 '존재론적 평등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여성 존재의 희생을 넘어 의존적 존재에서 독립적 존재로 그 다음 단계인 상호 관계적 존재, 평등적 관계성을 지향해야 한다. 교회는 유교적 가치관과 혼합된 기독교 전통이 여성을 억압하며 가부장제적 지배의 가치를 재생산하는지 성찰해야 한다. 강남순은 종교란 '모든' 인간의 자유 · 평등 · 권리를 확장하고 실천하는 책임성을 말한다. 젠더, 인종, 계층, 국적, 종교, 성적지향, 장애 등에 근거하여 다층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주변부 인들에 대한 책임과 환대를 확장하는 것이 기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존재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141]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삶의 이면적 이야기와 정황들을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털어놓고 풀어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도 사회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과 피해경험 여성들을 이해하고 돕는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발생 방지를 위한 목회자의 인식 전환과 목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그동안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피해여성들의 목소리로부터 들려오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교회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면담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상실된 무한한 관심을 되찾아야 한다.

> (연구 참여자 A)
> *양성평등 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철저하게 거기서부터 시켜야 해요, 그것은 작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크지만 그건 작은 법이잖아요 이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작은 이법도 못 지키면서 뭐 하라는 거야!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이 안 되어 있잖아요 목사들이 가르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신고해주고 교육받게 해주고 그래야지, 그래야 제대로 된 교회지, 이건 숨겨주고 감쳐주고 이거는 더 키우는 거야, 사람을 죽이는 거야, 까발려서 피해자를 옹호해주고 절대적으로*

[140]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304-05.

[141]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153-54.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가해자는 교육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법으로 벌금이라도 내게 해야 해, 교회 안에서 제대로만 되어있으면 여자들이 왜 교회 안 다니겠어?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언제 되겠어.

(연구 참여자 B)
현실을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고 어두운 부분을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축복, 항상 밝고, 항상 믿음은 너무 추상적이고 물론 생각을 바꾸고, 바뀔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C)
교회 안에 반드시 상담자가 있어야 해요. 너무 아픈데 들어만 줘도! 공감만 해줘도 너무 눈물이 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도 받지만,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이런 걸 알려줘야 해요. 반드시 교회는 상담을 해야 해요. 기도를 맨날 해도 이런 건 안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걸 알았더라면 폭력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았겠죠. 5년 전부터 누가 알려줘서 경찰에 신고를 2~3번 했어요. 지금은 남편이 폭력을 하려고 하면 내가 대항을 하고 '당신이 폭력 하면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랬더니 그 후로는 폭력을 안 해요.

(연구 참여자 D)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힘든 얘기도 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럴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전에 다니던 교회는 내가 싸웠어도 거기 가서는 웃고 있고, 가서 자랑하고, 그 사람들 자랑만 듣다 오고 난 그게 싫었어요. 형식적으로만 보이는 교회죠. 지금 교회는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고 남편 얘기, 속 얘기, 내가 바랬던 공동체예요.

폴 틸리히는 목회 상담자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하고자 노력하는 자요,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간을 돌보는 자라고 한다.[142]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진리를 구하기 위하여 목회자는 서로의 편견을 버리고 아울러 개인적인 관심 분야를 고집하는 자세는 지양하고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의 교회 내에서 재경험에 대한 응답의 필요성에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B. 내재된 신학의 변화 필요성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안에서 사건과 관계들을 해석하지만, 그것은 무의미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지평 안에서 과거를 선이해를 기반으로 현재를 경험하고 미래에 대해 해석을 내리게 된다. 피해경험 여성들 안에도 자신들의 삶의 경험에서 갖게 된 내재된 신학(embedded theology)을 가지고 있었다. 내재된 신학이란 성 역할에 대해, 혹은 피해 경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신념 등의 부정적 요소들이 사회와 역사적 산물로써 우리의

[142] 오성춘,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374.

심리에 깊게 내면화되어 심사받지 않은 신념이 담긴 신학을 말한다.[143] 목회적 돌봄에 있어 K. 사무엘 리는 그들이 가진 가장 심각한 장벽이 무엇인지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장벽이 어떻게 내담자들을 제한하며 적응을 방해하고 있는지, 제거할 장벽이 무엇인지, 그 장벽에 대처할 방법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에 관해 이야기한다.[144]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들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단순히 외부에서 가해진 폭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재된 신학과 중첩되어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목회자는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에게 이러한 내재된 신학을 이해하도록 돕고 의도적 신학(intentional theology)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회자들도 '심사받지 않은' 자신의 심리 속에 내장되어 있는 부정적 요소들이 목회 돌봄 과정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목회자 스스로 내재된 신학적 통찰을 부지런히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가부장제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부여된 비판되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 인식하고 분석하고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 사람의 종교적인 믿음과 실천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지,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지, 가정폭력 상황에서 힘의 남용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목회자는 감시할 의무가 있고, 점검하며 종교적 가치에 대해 함께 탐색해 볼 수 있다.[145]

사람들은 살면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생각은 자신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 자신들 안에 내재된 신학들을 작동하게 되는데 주로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역설적으로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살았던 가치와 신념, 기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도링은 이야기한다.[146] 그러한 성찰은 자신의 신학을 평가하거나 새로운 신학을 구축하는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한 개인에게 내재된 신학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가족이나 종교, 사회, 문화가 심어 준 생각들과 함께 씨실과 날실처럼 매우 깊게 삶의 무늬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된 신학에 대해 거리 두기와 질문을 통해 의도

---

143 Lee, "장애인 사역의 신학적 의의," 233.

144 Lee, 237.

145 김희선, "힘의 악용으로서의 가정폭력과 종교: 기독교신앙의 역할," *한국목회상담학회* (November 2015): 83.

146 Carrie Doehring, *The Practice of Pastoral Care 목회적 돌봄의 실제*, trans. 오오현 and 정호영 (서울: 학지사, 2012), 202.

적 신학을 활발하게 형성해 가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신앙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이때가 의도적 신학으로 변화하기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의도적 신학(intentional theology)은 나의 의도와는 별개로, 검증받지 않은, 사회의 가치관 또는 편견이 자연적으로 내장된 신학과는 구별되는 것이다.[147]

따라서 목회자는 내담자들이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속에서 그들 안에 내재된 신학이 그들이 가지고 살아온 가치관과 일치하면서 그동안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제적인 기독교 전통 안에서의 신학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인은 내재된 신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신앙일 수 있지만, 실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분이나 성별을 초월한 존엄성과 평등성을 지닌 인간 이해와 다른 왜곡된 반응일 수 있음에 대해 관찰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들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폭력 경험, 상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과 같은 복합적인 맥락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으로 의도적 신학(intentional theology)으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C. 목회자의 책임에 대한 필요성

목회자는 피해경험 여성들의 이야기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책임을 요구받는다. 그러한 요구에 목회자는 응답해야 하는데, 그 응답은 단순히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관계 속에서 복잡한 관계적 상호 작용을 포함해야 한다. 응답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것은 관계라는 전제이다. 관계에 대해 니버는 "대답하는 인간, 대화하는 인간,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행동으로 응답하는 인간"[148]으로 이야기한다. 인간은 상호 만남을 통해 그들이 속한 사회 안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해석하고 반응하는데, 이것은 삶의 전체 영역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응답은 추상적인 원리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관계 안에서의 실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회자들은 교회 내에서 타자들의 요청에 실행으로 응답해야 한다. 이러한 응답은 목회자 자신이 인격적인 한 주체로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목회자들의 응답으로써 요구받는 책임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으로 구별할 수 없다. 오히려 두 지평의

147 Lee, "장애인 사역의 신학적 의의," 250.

148 이정순, "리차드 니버의 책임의 윤리론 연구," *신학과 현장* vol. 5 (1995): 335.

간극에서 그 역동적인 긴장과 균형을 찾아가야 한다. 따라서 나는 목회자들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단지 교회 내에서의 응답에 머무르기보다는 공적인 자원과의 연대로까지 나아가야 함을 주장한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가 갖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중요한 주체로서 사회적 연대는 목회자의 책임에 대해 실제 상황에 대해 적합한 응답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란 책임성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다"[149]라는 데리다의 말은 불공평한 현실 세계에 대한 종교인들의 책임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목회자들은 세상에서 요구되는 책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없으며, 교회는 세상을 소외시키고는 세상과 화해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목회자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으며 해결책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폭력 피해경험 여성에게 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목회자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 가는 가운데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에 대해 인정하고 공적 자원과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목회자들의 이러한 열린 자세는 교회의 적합한 대응과 새로운 목적을 세워 협력해 나가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기독교인이라면 교회가 건물과 같이 공간적인 개념만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도 교회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목회 도구는 공동체의 성격을 특징짓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Clinebell)은 교회의 존재 의미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상실을 경험하면서 희망을 품게 하며, 갈등과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도록 해주고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깊이 있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갖도록 지원해 주는데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도구들이라고 하였다.[150]

따라서 나는 목회자이자 상담자로서 교회 내에서만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편협함을 내려놓고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공적 자원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교회 내의 다른 어떤 사람보다 목회자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태도가 교회

---

[149]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54.

[150] Howard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목회상담신론*, trans. 박근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7), 117.

공동체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본질상 시장 논리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며, 국가 역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교회 역시 가정폭력이라는 변화에 민감성과 적절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굳어진 사고가 아닌 민감한 문제의식과 다양한 응답이 발휘되도록 공적인 자원과 협력하는 응답이 꼭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Chapter V
결론 및 제언 (Conclusion and Suggestions)

나는 여성 목사이자 가정폭력 상담소 책임자로 일을 하면서 가정폭력이 교회 내 믿는 가정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도움보다는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용서하라는 2차 피해를 받게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왜 그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가정폭력 전문상담소를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경험한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이 좀 더 참지 못하고, 좀 더 화해하거나 양보하지 못한 것으로 자책하는 내적 귀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는 기독교 가정 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피해경험 여성 스스로 본인이 더 기도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내면화되었다. 이들이 느끼는 죄책감이나 영성의 부족 등으로 해석하는 관점은 자신을 깊은 상처 안에 스스로 가두며,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이들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2차 피해는 신체적인 폭력보다 더 깊은 정신적이고도 영적인 상처가 되는 강력한 폭력일 수 있다.

강남순은 "살아 있음"이란 자유를 지닌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151] 피해경험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부정적인 정서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세계는 물론 관계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귀결해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에 여전히 만연한 가부장제적인 태도가 유지하고 있는 제도적 차별, 담론화된 편견 등은 성 차별적인 문화에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교회 공동체는 가정폭력이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뿌리내리고 사는 사회의 취약함으로 여기며 함께 맞서는 용기를 내야 함을 제안한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로부터 상실된 무한한 관심을 되찾아야 한다.[152] 기독교라는 종교의 가장 중심에

---

[151] 강남순, *정의를 위하여*, 44.

[152] Paul Johannes Tillich, *The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 trans. 차성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8.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시선을 배우는 것'이다.[153] 예수의 시선은 모든 사람을 향한 연민의 시선이었고 '종교적'이 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소중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다.[154]

틸리히에 따르면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은 '존재 자체'를 향한 무한한 관심이라고 말한다. 우리 자신의 의식 변화는 물론 이들과 더불어 사는 정의와 포용이 보장되는 사회로 지향해 나가도록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교회 내의 보이지 않는 가부장제적인 위계질서나 암묵적 규칙과 같은 다양한 억압들에 대한 민감성이 확장되어 결국 공동체의 제도적 변화로 이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피해경험 여성들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는 우리에게 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지 몸에 흔적이 남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인 폭력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젠더에 기반한 그 폭력 안에는 억압과 통제가 함께 내재되어 있어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었다. 또한 교회 내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프로젝트를 통해 잘못된 왜곡으로 드러났다. 남성중심적인 폭력이 억압의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힘의 남용과 포용의 부재는 나아가 교회 안에서조차 신학적 폭력, 해석학적 폭력, 인식론적 폭력, 상징적인 폭력들이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힘의 남용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드러난 폭력 피해 양상들은 개인으로서 존재자체를 부정당하는 주체성의 결여 상태로 살아야 했으며, 자기 비하와 부정적인 정서를 안고 견디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더 우려할 만한 점은 이러한 폭력이 세대를 통해 전수되는 특성을 가졌다는 데 있다. 수동적으로 전통주의를 보전해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 공모자가 되어, 비판적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피해자는 우리의 그림자가 되어 결국 서로가 역기능적으로 관계 맺게 될 것이다. 나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비존재에서 존재자로의 전환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적극적인 경청자로 참여하였다. 우리에게 비판적 사유가 필요한 이유는 사유를 통해 존재를 존재로 볼

---

[153]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60.
[154] 강남순, 160-61.

수 있게 하는 연대의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155]

남편의 다른 가족들이 미친 파괴적인 영향들은 편 가르기나 역할에 대한 강요, 이혼이라는 사회적 통념들과 같은 요소들이었다. 이러한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가부장제적인 요소들은 개인의 돌봄을 통한 변화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식하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변화가 함께 가야 한다.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증상으로 드러내 공론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교회의 책임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들어왔던 주변화된 여성에게 이런 선행의 은혜가 복음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156]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비판적인 성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지 역시 공론화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피해경험 여성들에게 '저항의 공간'을 형성하는 심리적인 지지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존재가 되었을까? 우리는 자기의 존재로서 살기 위해 타자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로서 일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반짝이는 눈으로 보아주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누군가에 의해 담겨 져야 한다. 즉, 나의 삶에서 타인이 나의 존재를 읽어줄 때 우리는 내가 될 수 있다. 남편의 분노 조절 문제와 다양한 폭력의 형태로 드러난 힘의 악용이 남용되는 관계 속에서 목회자들이 맺는 관계는 무엇보다 일선에서 감당하게 되는 맨 앞일 수 있다. 목회자가 여성 신학적 관점을 갖게 될 때 여성 폭력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성찰을 가질 수 있다.

나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목회자들이 가부장제적인 태도의 변화를 촉구한다. 교회 내 목회자들의 위계질서에 순응하는 수직적인 문화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의사결정은 성차별적인 불의함을 넘어서는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목회자의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으로 인해 설교를 통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 성 차별적인 내용이 전달되는지 모니

---

[155] 강남순, *정의를 위하여*, 39.

[156] Neuger, *Counseling Women 여성들을 위한 목회상담*, 97.

터링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실천 신학의 구심점은 실행과 성찰일 수 있는데 목회자들의 자기 성찰적 시스템은 심리 상담자들의 슈퍼비전보다 빈약한 현실이다. 물론 개인의 역량에 맡겨진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에 더 날카롭게 자신을 벼리는 목회자도 있다. 그러나 개인에게만 부여된 성찰은 개인의 가치와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자기 성찰적 구조가 부족한 현실에서 나는 억압과 폭력에 대한 재교육이나 성인지 교육을 통한 민감성 확보를 제안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목회 돌봄을 통한 개인 내적인 돌봄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교회 내 자리 잡은 차별에 대한 묵인을 인정하고 피해경험 여성들이 침묵을 깨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 한다. 다만 피해경험 여성으로 그 대상자가 한정된 점, 그리고 목회 돌봄을 제공하는 목회자들의 이야기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목소리를 함께 담지 못한 것은 제한점으로 남는다. 이를 위해 후속적인 관심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록: 연구 참여 동의서
(Appendix: Informed Consent Form)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 91711) 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조명숙입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내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면담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담당하시는 이경식 교수님의 지도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교수님과 연락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메일 (k. Samuel Lee@cst.edu)으로 연락하시거나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신다면, 귀하는 심층 인터뷰에 약 90분 정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 진행 과정 동안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고 필사될 것입니다. 녹음된 모든 내용과 필사본은 논문 연구에만 사용될 것이고 논문 연구가 끝나면 모두 파기될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 참여에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이름, 이메일, 다른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자료가 수집되는 기간만 보관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논문에 귀하의 인터뷰 내용이 기재될 때 귀하의 성함과 개인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기재함으로써 귀하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의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때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 철회는 귀하가 가지고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연구 참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참여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이 논문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교회 내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하는 많은 여성을 위한 새로운 목회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이메일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면 연구자 조명숙의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holyangel1004@hanmail.net 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왔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2018-010)입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에 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 심사위원회 회장, 김두영 박사의 연락처인 ***-****-**** 혹은 viastar@hanmail.net 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참여자의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참여자의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문헌

Bibliography

[한서]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서울: 동녘, 2018.

______. *정의를 위하여*. 서울: 동녘, 2017.

______. *배움에 관하여*. 서울: 동녘, 2017.

______. *젠더와 종교*. 파주: 동녘, 2018.

______.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______. *페미니즘과 기독교*. 파주: 동녘, 2018.

______.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공지영.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서울: 해냄, 2018.

권영상, 김양희, 김정옥, 문혜숙, 송홍숙, 신강숙, 오정옥, 옥경희, 유가효, 전귀연, and 정민자. *가정폭력 전문상담*.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김광일.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서울: 탐구당, 1987.

김애화. *탈 가부장제 사회 구성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서울: 새세상연구소, 2010.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2.

김혜련. *남자의 결혼 여자의 이혼*.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2012.

김호경. *여자, 성서밖으로 나오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서근원.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 서울: 교육과학사, 2012.

신경림, 조명옥, and 양진향.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예방교육 표준 매뉴얼 강사지침서: 공공기관용*. 서울: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2013.

_________. *유자녀가정대상 가정폭력예방교육 표준 강의안 2.0 강사지침서*. 서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

오성춘.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이우정. *여성들을 위한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정문자, 정혜정, 이선혜, and 전영주.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18.

정세화, 한정자, 구훈모, 장필화, 윤양헌, 황은자, 차옥덕, 김정희, 조성숙, 정은, 김경애, 박진숙, and 강남식. *여성학의 이해*. 서울: 경문사, 1998.

정희진. *아주 친밀한 폭력*. 서울; 교양인, 2018.

최무열. *기독교인의 가정폭력, 이대로는 안된다*. 서울: 새 가정, 2005.

한미라. *여자가 성서를 읽을 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번역서]

Bradshaw, John. *The Family 가족*. Translated by 오제은. 서울: 학지사, 2006.

Clinebell, Howard.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목회상담신론*. Translated by 박근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7.

Cosgrove, Mark P. *Counseling for Anger 분노와 적대감*. Edited by Gary R. Collins. Translated by 김만풍. 서울: 두란노, 2002.

Doehring, Carrie. *The Practice of Pastoral Care 목회적 돌봄의 실제*. Translated by 오오현 and 정호영. 서울: 학지사, 2012.

Fiorenza, Elisabeth Schussler. *Discipleship of Equals: A Critical Feminist 동등자 제자직: 비판적 여성론의 해방교회론*. Translated by 김상분 and 황종렬. 왜관: 분도출판사, 1997.

Gadamer, Hans Georg. *Wahrheit und Methode 진리와 방법 II*. Translated by 임홍배. 서울: 문학동네, 2012.

Mason, Jennifer.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방법론*. Translated by 김두섭. 서울: 나남, 2002.

Miller, Alice. *사랑의 매는 없다*. Translated by 신홍민. 서울: 양철북, 2007.

Neuger, Christe Cozad. *Counseling Women: A Narrative, Pastoral Approach 여성들을 위한 목회상담: 이야기 심리학적 접근*. Translated by 정석환. 서울: 한들출판사, 2002.

Osmer, Richard 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실천신학의 네가지 중심과제*. Translated by 김현애 and 김정형.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2.

Padgett, Deborah K.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Translated by 유태균. 서울: 나남, 2005.

Poling, James Newton. *The Abuse of Power: A Theological Problem 성폭력과 힘의 악용*. Translated by 정희성.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5.

___________________. *Understanding Male Violence: Pastoral Care Issue 교회안의 남성폭력*. Translated by 박중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4.

Porter, Tony. *Man Box 남자다움에 갇힌 남자들*. Translated by 김영진. 서울: 한빛비즈, 2018.

Tillich, Paul Johannes. *The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 Translated by 차성구.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6.

[편집서]

고미경. "젠더기반 폭력 방지 정책의 이해," in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관리자 리더십과정 2차,* edited by 한국여성인권진흥원, 47-71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

변신원.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의 이해," in *폭력예방전문강사 통합전환과정,* edited by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3-86. 서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

이서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사이, 가정폭력 상담의 효과와 지향점." In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성과와 과제*, edited by 한국가정법률상담소, 7-43. 서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8.

Lee, K. Samuel. "장애인 사역의 신학적 의의," in *장애와 목회상담*, edited by 이재서, 231-255. 서울: 세계 밀알, 2018.

[저널]

강남순. "뜻으로 본 성서: 용서의 일상화-덫인가 덕인가." *갈라진 시대의 기쁜 소식* vol. 699 (September 2005): 9-11.

고영순. "관계사이에 흐르는 힘(Power)." *목회와 상담* vol. 4 (December 2003): 122-155.

______. "여성의 목소리: 변조인가, 변주인가?" *목회와 상담* vol. 14 (May 2010): 58-86.

김교헌 and 전겸구. "분노, 적대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vol. 2, no. 1 (November 1997): 79-95.

김희선. "힘의 악용으로서의 가정폭력과 종교: 기독교신앙의 역할." *한국목회상담학회* (November 2015): 73-85.

양현아. "가정폭력에 관한 비판적 성찰: 젠더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지* vol. 20, no. 1 (January 2006): 1-45.

이정순. "리차드 니버의 책임의 윤리론 연구." *신학과 현장* vol. 5 (1995): 321-350.

조용환. "성차별주의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32 (December 1993): 131-168.

[학위논문]

Epstein, Norman B. "Assessment and Treatmen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강연홍. "한국교회 내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을 위한 기독교상담에 대한 연구." MA thesis, 호남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2003.

백형의. "약물중독자의 지역사회 내 회복 경험." ThM thesis,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4.

홍미리. "젠더 감수성(gender sensibility)확장을 통한 일상적 폭력에 대한 인식과 저항." ThM thesis,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홍효정. "페미니스트 신학의 교회론 연구." MA thesis,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18.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st modified March 2, 201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397&efYd=20160903#0000.

이상서. “[디지털스토리] ‘칼로 물 베기 아닙니다’ … 여전한 부부폭력, 대책은.” *연합뉴스*, July 8, 2018. https://www.yna.co.kr/view/AKR20180706115100797.

이재윤. “5년 새 가정폭력 5배 증가 … 피해자 75% 이상 ‘여성’.” *연합뉴스*. May 19, 2017. https://www.yna.co.kr/view/AKR20170519040300065?section=popup/print.

조용석. “[2018국감]최근 3년 가정폭력사범 16만 … 피해자 75% 여성.” *이데일리.* October 3, 201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15366619369312&mediaCodeNo=257.

허정원. “출산율 0.92명 … 세계 꼴지 기록 또 경신.” *중앙일보.* February 27, 2020. https://news.joins.com/article/23716520.